

2025 이집트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2030년까지 안정적 성장	5
나. 외환 위기 개선 및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추진	5
다.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	9
라. MENA 지역 내 친환경 허브로 발돋움 노력 확대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1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1
2. 시장 분석	3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37
나. 교역	41
다. 투자	49
라. 프로젝트	5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57
가. 교역	57
나. 투자 진출	61
다. 협력 유망 분야	64
III. 진출전략	68
1. PEST 분석	68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69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7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82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85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86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7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4.1분기 해외 자본 유입으로 외환 위기 개선, '25년 경제성장률 4.4%로 상향 전망

- (호조 요인) '24.1분기 해외 투자 유치와 IMF 금융 지원 등으로 외화 유입되며 경제 회복세, 재정 수지 개선 기대 및 FDI 확대로 경제 발전 기대
 - '24.4월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안정적 경제 및 산업 개혁 추진
 - * 공기업 민영화, 보조금 축소,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장려책 추진
 - 전자산업, 자동차, 휴대폰 등 제조업 분야 및 녹색에너지 분야에 FDI 확대
 -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ICT 분야 성장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 관광 수익과 해외 노동자 송금액 증가로 점진적 외화 수익 증가
- (부진 요인) 파운드화 가치 하락, 높은 물가상승률,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 '25년 이집트 파운드 하락 및 높은 물가로 소비 둔화 및 경기 위축 우려
 - 수에즈 운하 수익 저조, '25년 대규모 외채 상환 시기로 재정적 부담 가중
 - 이-팔 분쟁의 중동으로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발전 지연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100.6	102.1	103.6	105.7	107.8	109.9
명목GDP	십억 달러	382.5	423.3	475.2	393.9	347.6	328.8
1인당 명목GDP	달러	3,802	4,146	4,587	3,728	3,225	2,991
실질성장률	%	3.6	3.3	6.7	3.8	3.0	4.4
실업률	%	8.3	7.3	7.3	7.1	7.4	7.0
소비자물가상승률	%	5.7	4.5	8.5	23.5	32.2	17.6
재정수지(GDP대비)	%	△10.1	△9.8	△7.4	△6.9	△7.9	-
총수출	백만 달러	29,301	43,614	51,646	42,055	21,500	-
(對韓 수출)	"	346	646	1,691	630	184	-
총수입	"	70,401	89,202	94,459	83,158	41,804	-
(對韓 수입)	"	1,215	1,682	1,468	1,335	1,009	-
무역수지	백만 달러	△41,100	△45,588	△42,813	△41,100	△14,700	-
경상수지	"	△11,167	△18,436	△16,551	△6,811	△8,629	△7,78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5.74	15.74	17.21	30.67	33.92	50.1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3	3.7	3.4	23.1	-	-
외국인직접투자(FDI)	억 달러	58.5	51.2	114.0	98.4	-	-

주1: '24년은 추정치, '25년은 전망치

주2: 이집트 총 수출입은 '24.6월, 對韓 수출입은 '24.9월, FDI는 '23.9월 기준

자료: IMF, EIU, CBE, UNCTAD, Trade Map, Fitch and Solutions, KITA 등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국내 정치 안정 지속)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30년까지 안정적 운영
- 나. (경제 개혁 추진) 외환 위기 개선 및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추진
- 다. (투자 유치 확대)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
- 라. (탈탄소 가속화) 그린수소 중심으로 MENA 지역 친환경 허브로 성장 가속화

가.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2030년까지 안정적 성장

□ (국내 정치) '24.4월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 정국 안정 지속 예상

- 현 엘-시시 대통령은 '23.12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 국회 역시 親엘-시시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2030년까지 안정적 운영 가능

□ '24.4월 엘-시시 3기 정부 출범, 내각 개편을 통한 경제 개발 시도

- '24.6월 내각 개편 단행, 투자부가 부활하면서 기존 29개 부처에서 30개로 개편되었고, 이 중 4개 부처는 타 부서와의 통합 추진

* △국제협력부와 기획경제개발부 통합, △투자부 부활하면서 기존 무역산업부의 무역 부문 통합, △교통부와 무역산업부의 산업 부문 통합, △이민부와 외교부 통합

* 전직 장관 중 10명 연임, 이외 20명의 장관은 신규 임명

- 3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 △고물가 통제, △국가 개발 속도 향상, △외화 유입 2배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수출 확대, FDI를 통한 해외 자본 유치 등에 중점을 둘 예정

나. 외환 위기 개선 및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추진

□ 이집트, 라스 엘 헤크마 프로젝트로 약 350억 달러 유치, 외환 위기 진정

- '24.2월 이집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 투자 유치

* 카이로 북서쪽 350km 있는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 이집트 정부는 35%의 지분 보유 예정

• **이집트는 프로젝트 계약 2개월 내 현금 240억 달러와 이집트 중앙은행에 예치된 UAE의 예금 110억 달러를 확보하면서 외환 위기 해소 국면으로 전환**

* 이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총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연간 4,000만~5,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

이집트 외환 위기 원인

- 이집트는 식량 및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러-우 사태로 밀, 에너지 수입 직격탄
 - '17년 이후 외환보유고는 400억 달러 내외, 러-우 사태 이후 '22.3월에만 약 200억 자본 달러(언론 추정) 유출
 -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 러-우 사태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에 달러 유출 급증
 - * 곡물 소비의 60%를 수입에 의존, 총 수입량 중 80%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차지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 재정 수익 여력 부족
 - 제조업 육성에도 부품 조립 시설에 그치며 원부자재 등 매년 약 400억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
 - 코로나로 관광 수익 감소 및 '24.10월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수익 감소
 - *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원은 관광, 수에즈 운하, 해외 노동자의 송금 유입액

자료: 현지 언론 종합(Ahram, Daily News Egypt)

□ **IMF 이사회, '24.3월 8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승인, 경제개혁 추진**

• **IMF는 경제개혁 이행 조건으로 당초보다 50억 달러 많은 80억 달러 지원**

- IMF는 '22.12월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으로 30억 달러 승인, 이후 '24.3월에 50억 달러 추가한 80억 달러 승인

* '22.12월에 1차 지원 후, 리비아 내전, 이-팔 분쟁,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등 외부 변수로 이집트 경제개혁 이행이 지연되면서 자금 지원 중단

• **IMF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유연한 환율제 도입, △통화 긴축, △재정 긴축 △국영기업 개혁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 중**

- IMF는 '26년까지 경제개혁 이행 여부 검토를 거쳐 단계적 지급 조건으로 '24.9월 3차 리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8.2억 달러 지원

* 외환시장 안정화, 인플레이션 억제에 긍정 평가, 공기업 민영화는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

• **'24.3월, IMF 경제개혁의 요구사항인 변동환율제를 도입, 달러당 환율이 30.9EGP에서 50.1EGP로 급등하며 파운드화 가치 62% 절하**

-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24.2월 한때 달러당 70EGP까지 치솟았던 암시장 환율이 사라지고 환율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은 긍정적 평가
- 반면 이집트 파운드의 가치 하락은 수입 가격 상승 요인으로 수입 여력 감소

- 변동환율제 도입과 함께 중앙은행은 긴축 통화정책 추진, 기준금리를 21.25%에서 27.25%로 6%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기대
 - '24.2월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이외 국영기업 매각 등 민영화를 통한 1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확보
 - '23.2월 국영기업 32곳 지분 매각 및 25억 달러 조달을 골자로 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정부가 목표한 50억 달러 중 35억 달러 투자 유치
 - * '23.5월 Egypt Telecom 지분 10%를 매각하며 약 1억 2,200만 달러 조달
 - * '23.6월에 국영기업 250여 개 우선 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23.7월에 호텔, 석유 및 석유화학, 철강 관련 국영기업 5개사 지분을 19억 달러에 매각 완료
 - 신임 재무부 장관은 FY 2024/25년 국영기업 기업공개(IPO)를 통해 20억~25억 달러 조달 목표를 세우고 △제약 및 화학 산업, △건축 및 건설, △전력 및 발전소 지분 축소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
 - * 정부는 '23.3월 이후 IPO 프로그램을 통해 31억 달러의 수익 창출
 - '24.9월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소액 금융 제공업체 Tamweely를 국제 투자자 그룹에 28억 파운드(약 5,770만 달러)에 매각 결정
 - * '17년 설립된 Tamweely는 연간 170억 파운드 규모 매출, 230개 지점 운영

IMF의 핵심 경제개혁 요구사항

- ◆ (개요) IMF는 '24.3.6일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의 일환으로 80억 달러 지원
- ◆ (요구사항) 경제 안정 촉진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구성
 - ① 변동환율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변동환율제 도입('24.3월)
 - * 시장 환율에 따라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약 62% 하락
 - ②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 권장
 - * '24년 초 이후로 총 800bp(기준금리 8% 인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
 - ③ 재정 긴축 : 재정적자 감소 및 대외 부채 안정화를 위해 재정 정책 강화 요구
 - * 이집트는 FY 2024/25년까지 재정 흑자를 3.5%로 증가 목표 수립, 인프라 지출 감소 및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부채 감소 추진
 - ④ 국영기업의 민영화 : 공공 부문 축소를 통한 민간 부문 활성화 강조
 - * 이집트는 국영기업 매각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
 - ⑤ 사회적 보호 강화 : 경제개혁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감소 노력
 - * 취약층을 위한 '타카풀'과 '카라마' 현금 지원 프로그램 확장 등 사회 지출 유지
- ◆ (평가) 분기마다 리뷰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최근 3차 검토 요구사항 충족
 - (긍정) 외환시장 안정화 및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적이라는 평가
 -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도전 과제이지만, 경제개혁이 지속 진행됨에 따라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
 - (부진) 국영기업 민영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평가
 - * 정부는 부채 감소와 투자 유치에 꾸준히 노력

자료: 현지 언론 종합(Ahram, Daily News Egypt)

□ IMF 자금 지원 이후,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에서 이집트에 자금 지원

〈2024년 이집트 자금 유입 현황〉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조건
세계은행 (World Bank)	60억 달러	'24.3.18일	• 정부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지원 • 민간 부문 발전에 30억 달러 지원 •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예정
유럽연합(EU)	74억 유로 (약 80억 달러)	'24.3.17일	• 단기적으로 10억 유로 지원 • '24~'27년 추가로 64억 유로 지원 • 경제 안정화 및 이민 문제 해결 목적

자료: 현지 언론 종합(Ahram, Daily News Egypt)

다.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

□ 이집트 투자최고위원회, FDI 촉진을 위한 투자법 개정 및 22개 신규 방침 승인

- 엘-시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집트 투자최고위원회는 '23.6월 해외 투자 유치와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17년 발표한 총리령 2310호 76조를 대폭 개정
 - 투자법 개정에 따라 이집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최소 자본금, 프로젝트당 면적, 필수 고용 인원 수 등의 조건이 철폐됨
 - * 최소 자본금 1,000만 및 투자금 2,000만 달러, 프로젝트 면적 최소 20,000㎡, 500명 이상 고용
 - 이집트 투자청(GAFI) 감독 하 의료, 교통, 관광 등 민간 서비스 자유구역 설립 가능
- 외국인 투자자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22개 신규 방침 승인
 - 회사 설립 비용 절감 및 필수 승인 절차 간소화, 골든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통한 외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 * '21.12월 제도 도입 이후 '22년부터 본격 운영, 골든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은 공장용 설비 수입 면세, 과세 순이익 할인, 토지 비용 50% 할인 및 행정 간소화 등 인센티브 혜택
 - 이외 토지 소유권 관련 제한 완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인정 범위 확대 등
- '24.9월 총리는 △중소기업, △프리랜서, △사업 규모가 1,500만 이집트 파운드(약 31만 달러)를 넘지 않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발표
 - 주요 내용은 △정부 기관 납부금 정산 시스템 도입, △납부 연체 벌금 상한선 마련, △세무 신고 간소화 및 표본 검사 제도 확대, △국제기업의 이전가격 조사 면제 한도를 3천만EGP로 인상, △외국인 관광객의 VAT 환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

□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석유 및 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 에너지 기업 및 GCC 산유국의 對이집트 투자 활발
 - '23.9월 누적 기준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투자 유치액 약 52억 달러 기록
 - 미국 Apache사, '24년까지 석유 및 가스 개발 분야 14억 달러 투자 예정
 - 이탈리아 Eni사, '27년까지 천연자원 탐사 및 생산 위해 77억 달러 투자 추진
 - 사우디 ACWA Power, '26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100억 달러 투자 검토
 - UAE 투자사, 이집트 담배 제조사 Estern Company 지분 30%(6.25억 달러) 인수('23.9월)
 - '24.6월 이집트-EU 투자 콘퍼런스(Egypt-EU Investment Conference)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677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 합의

라. MENA 지역 내 친환경 허브로 발돋움 노력 확대

□ '22.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 이후 노후화 차량 친환경 전환, 수소 플랜트 개발 등 녹색산업 개발 박차

- '22.2월 러-우 사태 이후 경제위기 심화에도 불구하고 COP27 개최를 위해 1억 6,000만 달러 정부 예산을 할당하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의지 대내외 천명
 - 이집트는 COP27 개최 전 △샤름 엘-셰이크 국제회의장 친환경 방법으로 보수, △대표 휴양지 차량 천연가스 또는 전기차로 전환, △친환경 전력 생산 확대, △폐기물 관리 효율성 증대 등 4대 친환경 목표 제시
- '22.7월~'23.3월 약 1만 대의 자동차를 가솔린 및 천연가스 이중 연료 사용 가능 모델로 전환, '26년 중반까지 25만 대의 노후화 차량 폐기 및 15만 대의 가솔린 차량 천연가스로 전환 계획
 - 같은 기간 동안 이집트 전역에 688개의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향후 이르면 시일 내로 천연가스 충전소를 1,000개까지 확충할 예정
- '23.8월 이집트 최대 휴양지인 샤름 엘-셰이크를 녹색도시로 지정,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전, 친환경 연료 사용 인프라 구축 등이 진행될 계획

□ 그린수소 인센티브 제정을 통한 그린수소 허브 실천 구체화

- 이집트는 '22년 12월, COP27에서 '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를 최초 발표, 구체적으로 '30년까지 연간 32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하고 '40년까지 약 3배인 920만 톤 생산하여 이를 통해 국가 GDP를 100억~18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 '24.2월 '그린수소 및 파생상품 생산 프로젝트 인센티브'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유럽 각국과 중국 등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이집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협력 비중이 높고, UAE, 사우디, 인도,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음
- * 이집트와 중국건축공정총공사의 협력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에코플랜트가 참여 중임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가. (정치) 엘-시시 연임 성공 시 국내 정치 안정, GCC, BRICS, 미국과도 우호 관계 지속
- 나. (경제) 외환보유고 증가세 둔화,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리스크 상존
- 다. (산업)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 전략산업 제조업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 라. (정책·규제) SDS 2030, ESG 본격 도입, 광범위한 FTA, 수입 규제 지속 등

가. 정치 환경

□ (국내 정치) '24.4월 엘-시시 대통령의 3기 정부 출범, 2030년까지 국정 안정

- 현 엘-시시 대통령은 '23.12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2030년까지 집권 가능, 국회 또한 親엘-시시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 국정 운영 가능

* '20.5월 총선에서 親엘-시시 성향의 국가미래당(FNP, Future of a Nation Party)이 596석 중 316석으로 과반 확보, 무소속 의원 124명 및 10~50석 내외의 소수 정당 의원 친정부 인사로 분류

- '24.4월 엘-시시 대통령은 3선 취임식에서 새 임기 동안의 7가지 국정 핵심 정책을 발표, ① 국가 안보, ② 민주주의 강화, ③ 보건 및 교육 ④ 포괄적 제도 개혁, ⑤ 지속 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 ⑥ 사회 안전망 구축, ⑦ 도시 개발 언급
-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전환 의지 표명, ICT 분야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해외 투자 유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및 제조업 육성 계획,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확대 등 강조

*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당기 회계연도 42%에서 '25년 50%, '26년 65%까지 확대 발표

〈7대 핵심 국가 정책 요약〉

No.	구분	세부내역
1	국가 안보 보호	• 전략적 균형 정책 지속
2	민주주의 강화	• 청년들의 정치적·민주적 참여 활성화
3	보건 및 교육	•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적 자원 개발
4	제도 개혁	• 공공 지출 합리화 •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	• 국가 수입 두 배 목표 • 민영화 프로젝트 •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의 국제 허브로 성장 •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 농업, 제조업 부문 강화
6	사회 안전망 구축	• 사회 보호 관련 지출 및 보조금 확대
7	도시 개발	• 4세대 신도시 완공 •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 비공식 지역사회 생활 환경 개선

자료: 정부 발표 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sisi.org, Daily Egypt, Ahram 등)

- '24.6월 내각 개편 단행, 투자부가 부활하면서 기존 29개 부처에서 30개로 개편되었고, 이 중 4개 부처는 타 부서와의 통합 추진

* △국제협력부와 기획경제개발부 통합, △투자부 부활하면서 기존 무역산업부의 무역 부문 통합, △교통부와 무역산업부의 산업 부문 통합, △이민부와 외교부 통합

* 전직 장관 중 10명 연임, 이외 20명의 장관은 신규 임명

- 3기 내각은 △인플레이션을 완화, △고물가 통제, △국가 개발 속도 향상, △외화 유입 2배 확대 등을 목표로 함. 특히 경제 분야는 수출 확대, FDI를 통한 해외 자본 유치 등에 중점을 둘 예정

□ (대외 정치) MENA 지역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GCC와 협력 지속, BRICS, 미국 및 중국과도 우호 관계 유지, 수단과 에티오피아 이슈는 불안 리스크

• (GCC) 이집트는 과거부터 사우디, UAE 등 GCC 산유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원조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사우디 및 UAE의 對이집트 투자 활발

- (사우디) 아-사우디 교역은 약 320억 달러('22/'23년)를 기록, 이집트는 주로 농산물, 화학제품, 식물 및 건축자재를 수출하고 사우디는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 사우디의 對이집트 투자는 약 100억 달러('22년)를 기록하였고 주로 부동산, 관광, 에너지 및 인프라에 투자

* 사우디 에너지기업 ACWA Power, 아스완 2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1.23억 달러) 지원('23.4월) 및 소하그 메가 풍력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진행('23.7월)

* '24.9월 PIF(Saudi Public Investment Fund)는 이집트에 1단계 50억 투자 발표 및 내년까지 전력망 상호 연결 계획 논의

- (UAE) '23.6월 UAE 재생에너지기업 MADAR사는 이집트와 100억 달러 규모 소하그 풍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23.9월 UAE 투자회사의 이집트 최대 담배 제조기업 Eastern Company 지분 30%(6.25억 달러) 인수 등

- '24.2월 아부다비 투자청이 이집트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350억 달러의 투자를 확정하면서 외화 위기에 처한 이집트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

• (이스라엘) 이집트-이스라엘은 1979년 평화협정 이후 경제적 협력관계 유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카타르와 함께 중재자 역할을 수행

- '20.1월 이스라엘의 對이집트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이스라엘은 동지중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집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이집트는 액화 처리 과정을 통해 유럽으로 재수출

- '22.2월 러-우 사태 이후 천연가스 공급 위기를 겪었던 EU는 같은 해 6월에 EU·이집트·이스라엘 3자 간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

- 1979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군사적 충돌 시 평화 협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공습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

- '24.5월 이스라엘 *필라델피 회랑 점령,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안에서 필라델피 회랑에 군대 주둔을 주장한 반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철수 거듭 강조

*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참여한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에 따라 지정된 완충 지대에 설정된 14km의 이집트-가자 간의 국경선.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한된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으나, '05년 이스라엘은 동 회랑에서 자진 철수한 바 있음

• (미국)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우호 관계 지속, 미국은 1979년부터 이집트에 매년 약 1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 지원 중

- 미국은 엘-시시 대통령의 쿠데타('13.7월)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으며, '19.4월 엘-시시 대통령 방미 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강조

- '21.5월 팔레스타인 하마스 - 이스라엘 간 군사 휴전협정을 중재, '21.11월 중동 평화 안정을 위한 미국-이집트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개최, '22.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 회의에서도 양국 정상회담 개최

- 다만 '23.9월 미국은 정치범 석방 등 이집트가 민주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5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한 바 있음.

* 미국은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이집트에 매년 약 13억 달러 군사원조금 지원 중

• **(유럽) '04년부터 연합 협정을 맺어왔으며, EU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특히 *난민 관리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집트와의 적극 협력 중이며, '04년 6월 FTA 체결에 따라 유럽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이 매우 활발**

- * EU는 지난해 튀니지, 모리타니 등의 국가와도 지중해를 통한 이주민 유입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음
- '24.3월 이집트-EU 정상회의 개최해 협력관계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승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3년간의 74억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
- '24.6월 이집트-EU Investment Conference를 통해 유럽 기업들과 490억 유로 규모의 29건 계약을 체결
- * △BP, Infinity Power, Hassan Allam, UAE Masdar 등의 기업, 수에즈운하경제구역에 150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 △DEME Group 등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 지중해 연안 가르굽 항만에 240억 유로 규모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국부펀드(SFE) 및 DAI Infrastructure, 동부 포트사이드에 100억 달러 규모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 **(중국) '00년대 이후 양국 교역이 급성장하며 중국은 이집트의 제1위 수입국으로 부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적 협력도 지속 강화**

- '23.10월 중국과 프로젝트 개발 기금 채무 스와프 MOU를 체결했음
- '24.5월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수교 10주년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외교, 경제, 문화 협력 등을 포함하는 '이집트-중국 파트너십의 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대일로 공동 개발 계획 합의문에 서명
- '24.9월 기준 약 2,000개의 중국기업 진출, 다수의 *중국기업이 이집트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중심으로 철강, 섬유, 비료뿐 아니라 EV, 그린수소 등 다양한 분야 투자, '24.1~4월 중국은 SCZone 전체 투자의 40%를 차지
- * ShenFeng, 중국국영건설공사(CSCEC), D.Cita, Henshing, Hennoway 등
- * '24.5월 중국 FAW 그룹은 현지 GB Auto와 협력, 30억 EGP 투자하여 '25년 EV 생산 예정
- * 중국 화웨이는 이집트 국영기업 Telecom Egypt와 5G 통신망 구축 계약
- '24.9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계기, 11억 달러 상당의 각종 계약 및 협정 체결
- * 6개 중국회사가 중국-이집트 TEDA 무역지대와 토지 사용권 계약, 수에즈운하경제구역 내 신 산업지구 건설과 화학 및 식품산업, 통신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 포괄

• **(일본) 정상 간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對이집트 투자 중심 경제협력 활동 지속**

- '15년과 '16년에 정상회담 진행, '23.4월에는 기시다 총리 이집트 순방
- 과거부터 철도, 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차관 지원이 활발하며, '23.5월에는 카이로 네 번째 지하철 노선에 1,000억 엔(약 7.3억 달러) 지원 발표
- 일본은 이집트의 주요 아시아 개발 파트너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18개의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약 39억 달러 이상을 투자
- '24.4월 일본과의 자금 조달 협정에 의해 2.3억 달러의 예산 지원 확보
- '24.7월 일본 SHARP사는 현지 기업 엘아라비(Elaraby)와 연간 40만 대의 냉장고 및 냉동고 제조를 위한 5천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 일본 식품 및 제약기업 Otsuka는 '24.10월에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이집트 산업단지 10th of Ramadan에 의약품 공장을 건설

- **(러시아) 1950년대 시작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러시아의 이집트 원조 지속, 최근 엘-다바 원전 추진으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
 -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로 벌어진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당시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영국·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로부터 승리
 -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對이집트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Rosatom은 '17년 이집트와 4,800MW 규모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계약 체결. 사업비 300억 달러 중 85%를 러시아가 조달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만 이집트 정부가 조달
 - 이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이집트의 최대 밀 수입국으로, 이집트는 식량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 확대 중
- **(리비아) 이집트는 리비아에 친이슬람 성향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하프타르 장군의 동부 리비아 국민군(LNA)을 직·간접으로 지원**
 - * 리비아는 '24년 이집트의 수출국 순위 6위로 내전으로 규모는 축소했으나 교역은 활발
 - '24.1월 리비아 정부는 복수의 이집트 기업과 리비아 도시 △데르나, △뱅가지, △아즈다비 3곳에 11개의 신규 다리(Bridge) 건설을 위한 계약 체결
 - '24.3월 이집트 국가정보국 국장은 리비아 국민군(LNA) 사령관 하프타르를 만나 리비아 대통령 및 의회 선거에 대한 이집트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힘
- **(수단) '23.4월 수단 관련 이집트 정부는 SAF(정부지원군) 지지 입장, 내전 이후 올해 8월까지 51만 4천 명의 난민이 이집트로 유입, 난민 유입 급증은 이집트 사회·안전 예산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
 - * UN 인도지원조정실(OCHA)에 따르면 '23.4월부터 '24.8월까지 약 1,302만 명의 난민 발생, 해외 이주한 230만 명 난민 중 약 22.4%가 이집트로 유입
- **(에티오피아)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11년 자국의 전력 생산 및 경제발전을 위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 Renaissance Dam, GERD)* 건설을 발표. 이에 수자원의 90%를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는 물 부족을 우려하며 에티오피아와 갈등 지속**
 - 에티오피아는 '15년 협정을 통해 나일강 물을 이집트와 수단에 지속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음
 - 에티오피아는 '24.7월 5차 저수 시작, 이집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에티오피아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항의
 - * 나일강 상류 에티오피아 지역에 건설된 세계 7번째 규모의 댐으로 이집트 및 수단은 르네상스 댐으로 인해 자국이 사용 중인 나일강 하류 수자원 고갈 및 오염 문제 우려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IMF, '24년 이집트 경제성장률 3.0%, '25년 4.4%로 전망

- 코로나 이후 기저효과로 '22년 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 외환보유고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이집트 파운드 가치 하락 등의 여파로 '23년에 이어 '24년 3.0%로 전년 대비 둔화 전망
- '22.2월 러-우 사태 이후 곡물 수입가 상승 등으로 외환보유고 급감,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며 경제 불안을 초래했으며, '24.3월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
* '24.8월 인플레이션이 26.3%로 다소 진정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 존재
- 국가 주요 외화 수입원은 관광 수입, 수에즈 운하 통행료, 해외 노동자의 송금액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구조
 -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 수익 회복세, 환율 불안으로 감소했던 해외 노동자의 송금액 반등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는 반면,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통행료는 작년 대비 감소 예상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원 추이〉

(단위: 억 달러, %)

외화수익원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관광	48.6	△50.69	107.5	121.1	136.3	26.8	108.6	△20.3
수에즈 운하	59.1	1.82	70.0	18.4	87.6	25.2	57.6	△34.2
해외 노동자 송금	314.3	13.21	319.2	1.6	220.8	△30.85	144.7	△34.5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24.11월 기준 최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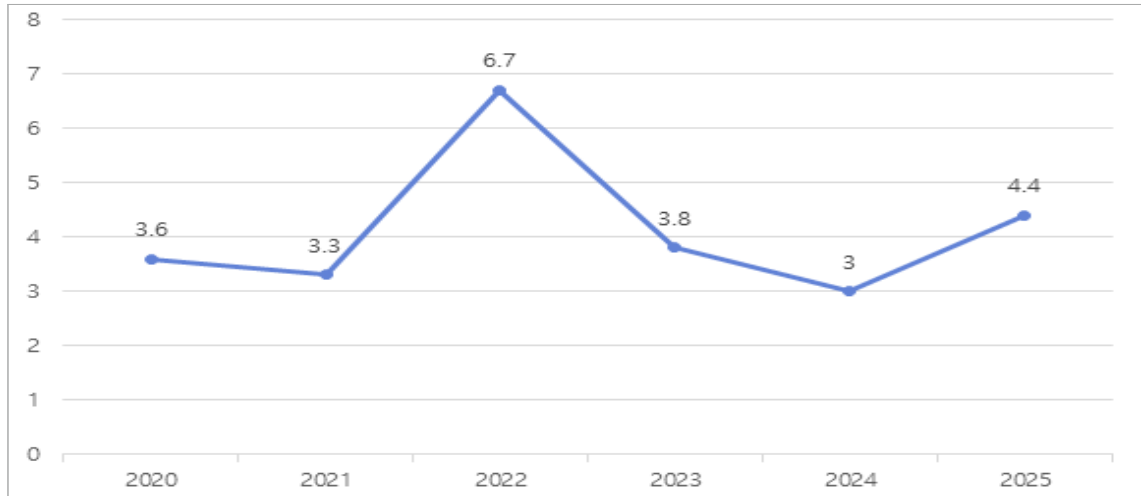
- 외환위기 안정화 이후 국제기구의 해외 자금 유입 및 해외 투자 유치 활발하여 '25년 이집트 경제성장률은 '24년 대비 높은 4.4%로 전망

〈2021~2025년 이집트 경제성장률 및 GDP 동향〉

구분	2021	2022	2023	2024e	2025f
GDP 성장률(%)	3.3	6.7	3.8	3.0	4.4
명목 GDP(십억 달러)	423.3	475.2	393.9	347.6	328.8
1인당 GDP(달러)	4,146	4,587	3,728	3,225	2,991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2020~2024년 이집트 GDP 성장률 추이〉



자료: IMF(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 (금리) 고물가 지속, 기준금리 지속 인상하여 역대 최고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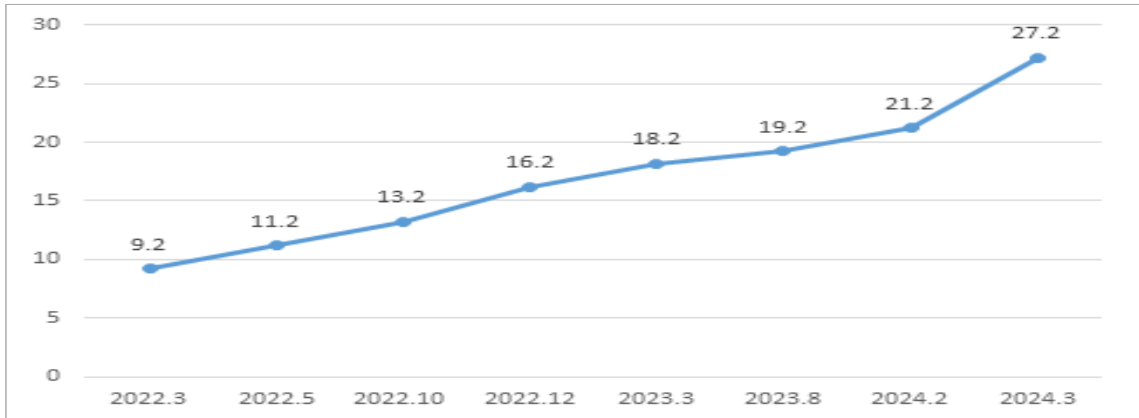
- 이집트 중앙은행(CBE)은 '24.3월 1개월 만에 기준금리 6% 인상 단행, 이에 이집트 기준금리는 27.2%로 역대 최고치 기록
 - 기준금리 인상으로 오버나이트 대출금리 사상 최고치인 28.6% 기록
- '22.3월 9.2%였던 기준금리는 2년 만에 27.2%로 급증, 인플레이션 억제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유지 전망

〈2022.3월 이후 기준금리 동향〉

구분	2022				2023		2024	
	3월	5월	10월	12월	3월	8월	2월	3월
기준금리(%)	9.2	11.2	13.2	16.2	18.2	19.2	21.2	27.2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24.11월 기준 최신자료)

〈2022.3월 이후 기준금리 추이〉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 상승에 '23.9월 인플레이션 38% 기록, 점진적 안정세

- IMF는 '24.4월 World Economic Outlook Data를 통해 '24~'25년 이집트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각각 32.2% 및 25.7%로 전망

* IMF는 이집트 금융 지원 이후 3차 리뷰에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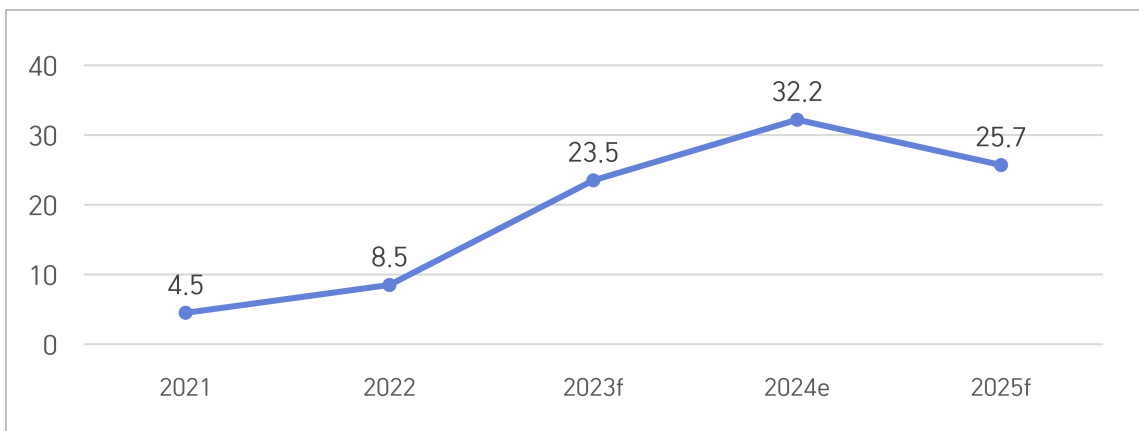
〈2021~2024년 이집트 인플레이션 동향〉

구분	2021	2022	2023f	2024e	2025f
인플레이션(%)	4.5	8.5	23.5	32.2	25.7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

〈2021~2025년 이집트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IMF(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 월별 인플레이션은 '24.9월 26.4%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 완화세 주춤
 - '22.4분기 이후 인플레이션 급증, '23.9월 38.0%로 역대 최고치 기록
 - '24.2월 35.7%에서 7월 25.6%로 6개월간 지속 하락 후 8~9월 소폭 상승하며 26.4% 기록
 - 이집트 정부는 '24년까지 목표 인플레이션을 7%(±2%) 설정, 이를 위해 '24.3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
- '22.2월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을 자극, 더불어 '24.3월 이집트 파운드 하락으로 수입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 자극
 -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소비국으로 연간 1,800만 톤의 밀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인 1,200만 톤을 수입에 의존* 수입의 80% 러-우가 차지
 - '23.4~9월 동안 내수 공급용 밀 150Kg당 평균 가격은 1,500EGP(약 49달러)로 전년 동기(500EGP) 가격 대비 3배 상승
 - UN식량농업기구(FAO)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 수단 난민 유입 급증으로 이집트는 '24년에도 1,200만 톤 이상의 밀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

〈이집트의 최근 1년간 월별 인플레이션 동향〉

구분	2023						202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38.0	35.8	34.6	33.7	29.8	35.7	33.2	32.5	28.2	27.5	25.7	26.3	26.4
근원 인플레이션(%)	39.7	38.1	35.9	34.2	29.0	35.1	33.7	31.8	27.1	26.6	24.4	25.1	25.0

주: 이집트 중앙은행(CBE)('24년 11월 기준 최신 자료)

□ (외환보유고) 러-우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 급감하여 '24.11월 467.4억 달러 기록

- '20년 이후 400억 달러 내외였던 외환보유고가 '22년 러-우 사태 여파로 340억 달러로 급감하며 '17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정부는 '22.2분기부터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수입 제한, 달러 송금 통제 등 시행, 이후 외환보유고가 점진적 회복되어 '24.9월 465.9억 달러 기록
- 외환보유고 증가는 '24.2월 UAE의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350억 달러 투자 유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4.3월부터 IMF를 비롯 EU, World Bank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이어짐
 - 이외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및 FDI 유치를 통한 외화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다만, 정부는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모니터링을 통해 외환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 시기 및 수입 물량을 조정하고 있음

〈2020~2024년 이집트 외환보유고 동향〉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1월
외환보유고(억 달러)	400.6	409.3	340.0	352.2	465.9

주: 2020~2023년은 연말(12월), 2024년은 11월 기준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

□ (환율) '22.2월 이후 파운드화(EGP) 가치 급락 '24.9월 1.00USD = 50.11EGP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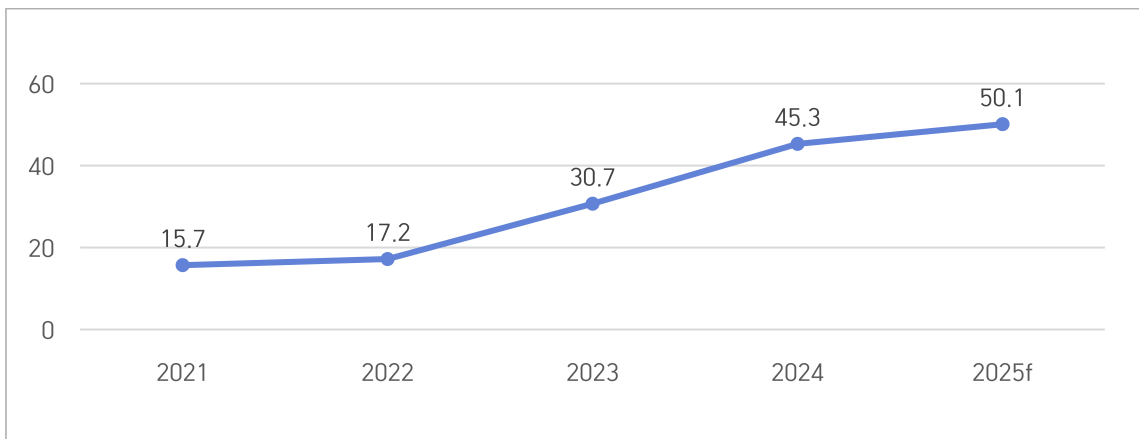
- '19~'21년 미 달러에 대한 이집트 파운드의 환율은 15.0EGP 내외로 안정적이었으나, '22년 이후 급감하여 '23.9월 30.9EGP로 50% 이상 급락, '24.3월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50.1EGP까지 62% 추가 하락
- '22~'23년 선진국 금리 인상, 러-우 사태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이집트 채권 대량 매도가 파운드화(EGP) 가치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이후 외화 부족으로 수입 가격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변동환율 적용되며 시장 환율 적응 과정에서 이집트 파운드화 절하
- EIU는 이집트 정부의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이집트 파운드 환율을 '24년 말 45.3EGP로 추정, '25년은 50.1EGP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이집트 환율은 지속적인 재정적자 및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개선 과제

〈2021~2025년 이집트 연평균 환율 동향〉

구분	2021	2022	2023	2024f	2025f
환율(1USD당 EGP)	15.7	17.2	30.7	45.3	50.1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EIU

〈2021~2025년 이집트 연평균 환율 동향〉



자료: EIU(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다. 산업 환경

□ (산업 특징) FY 2023/24년 기준 GDP 내 제조업 비중 15.7%로 전 산업 분야 중 1위 기록, MENA 지역 국가 중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평가

- 2022/23 회계연도 기준 이집트의 산업별 GDP 비중은 제조업이 15.7% 1위, 다음은 도소매업 14.8%, 농업·어업 12.2%, 부동산 9.7%, 건설업 9.0% 순

* FY · 2021/22년 GDP 비중(%) : (제조업) 16.8, (도소매) 13.9, (농업 · 어업) 11.5 (부동산), 10.9 (건설) 7.6

- 1974년부터 GCC 산유국 오일머니를 대규모로 유치하며 제조업 기반 마련, 이후 1982년까지 섬유, 식품 등 경공업 중심으로 제조업 본격 육성

–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식품, 섬유 등)은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일부 생산 제품은 인근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

- 이집트는 과거 주로 광물을 수출했으나, 산업 다각화 일환으로 '05년 이후 제조업을 육성하며 제조 완제품 수출 증가

* 천연가스 등 광물성 원료 수출은 감소세, 전기 · 전자, 비료, 의류(편직물), 철강 등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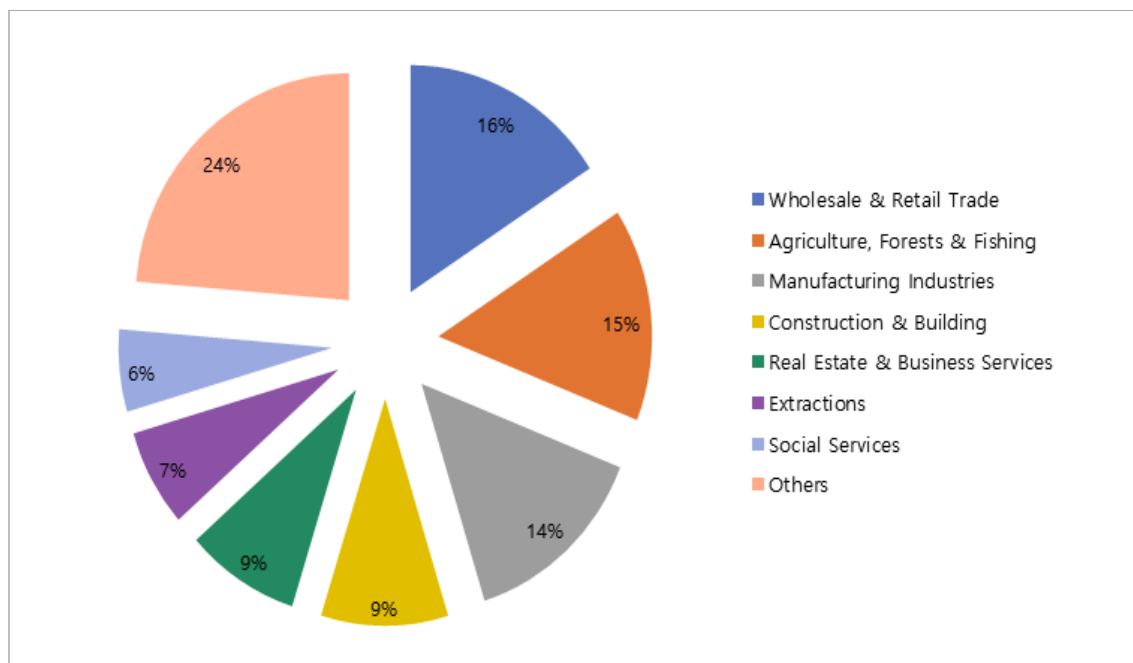
- 제조업 육성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입 후 단순 조립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또한 통관 및 무역 규제에 의한 애로로 모로코, 튀르키예 등 인근 제조업 경쟁국 대비 GVC 참여는 저조한 상황

- 한편 산업별 성장률은 관광이 43.6%로 최고 성장률 기록, 다음은 통신 · IT 41.1%, 정보 37.9%, 전기 36.2%, 건설업 34.3% 순이며 제조업은 17.2% 성장

* FY 2022/23년 산업별 GDP 비중(%) : (관광업) 3.3, (통신) 3.19, (전기) 1.9, (정보) 0.5, (건설) 9.0

– 최근 'ICT 이집트', '디지털 이집트' 등의 추진으로 ICT 분야가 높은 성장세

〈2022/23 회계연도 기준 이집트의 산업별 GDP 비중〉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 세부 업종별 GDP 동향〉

(단위: 억 EGP, %)

순 위	업종	2021/22 회계연도			2022/23 회계연도			점유율	성장률
		공공	민간	총계	공공	민간	총계		
1	제조업	3,411.9	9,113.0	12,524.9	3,987.9	11,146.2	15,134.1	15.7	17.2
	a)석유정제업	1,033.7	8,859.2	9,893.0	1,262.5	10,857.2	12,119.6	12.6	18.4
	b)기타제조업	2,378.1	253.8	2,631.9	2,725.5	289.0	3,014.5	3.1	12.7
2	도소매, 무역	535.5	9,865.7	10,401.2	733.0	13,505.8	14,238.7	14.8	27.0
3	농수산업, 임업	15.8	8,568.4	8,584.2	21.5	11,726.4	11,747.9	12.2	26.9
4	부동산	46.5	8,104.3	8,150.9	52.7	9,308.4	9,361.1	9.7	12.9
	a)부동산 보유	38.2	5,460.3	5,498.5	42.6	6,130.0	6,172.6	6.4	10.9
	b)비즈니스	8.3	2,644.1	2,652.4	10.0	3,178.4	3,188.5	3.3	16.8
5	건축, 건설	495.0	5,194.0	5,689.0	746.4	7,907.7	8,654.1	9.0	34.3
6	시추 및 채굴	4,007.5	1,648.2	5,655.6	4,730.1	2,074.9	6,805.0	7.1	16.9
	a)석유	2,185.7	352.7	2,538.4	2,688.6	426.2	3,114.8	3.2	18.5
	b)가스	1,774.4	307.4	2,081.8	1,979.0	343.2	2,322.2	2.4	10.4
	c)기타	47.4	988.1	1,035.5	62.5	1,305.6	1,368.1	1.4	24.3
7	사회 서비스	317.5	4,680.7	4,998.3	391.0	5,716.2	6,107.3	6.3	18.2
	a)교육	0.0	1,699.8	1,699.8	0.0	2,011.6	2,011.6	2.1	15.5
	b)보건의료	305.0	1,708.4	2,013.4	375.2	2,091.1	2,466.2	2.6	18.4
	c)기타	12.5	1,272.5	1,285.0	15.8	1,613.5	1,629.4	1.7	21.1
8	일반정부	4,884.6	0.0	4,884.6	5,544.9	0.0	5,544.9	5.7	11.9
9	교통, 창고(물류)	577.2	3,276.7	3,853.9	678.5	3,854.6	4,533.1	4.7	15.0
10	금융중개	1,207.8	1,333.5	2,541.3	1,536.2	1,696.0	3,232.2	3.4	21.4
11	관광	362.0	1,421.3	1,783.3	637.8	2,508.6	3,146.3	3.3	43.3
12	통신, IT	35.8	1,727.7	1,763.5	55.7	2,936.5	2,992.2	3.1	41.1
13	전기	1,146.3	0.0	1,146.3	1,795.8	0.0	1,795.8	1.9	36.2
14	수에즈 운하	970.6	403.8	1,374.4	1,091.5	453.4	1,544.9	1.6	11.0
15	사회보장, 보험	379.0	119.3	498.3	482.0	151.8	633.9	0.7	21.4
16	수처리, 재활용	194.4	215.6	410.0	230.7	255.6	486.4	0.5	15.7
17	정보	12.1	299.4	311.5	19.7	482.1	501.8	0.5	37.9
총 GDP		18,599.5	55,971.7	74,571.2	22,735.3	73,724.3	96,459.6	100.0	22.7

주: 금액은 현재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24.9월 기준 자료)

□ (제조업) 전자제품, 휴대폰, 석유화학 중심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노력

• (전자제품) 엘-시시 대통령 주도로 '15년부터 추진된 이집트 전자산업 육성 정책(Egypt Makes Electronics) 하에 가전 등 전자제품 생산 역량 강화

* EME : (요구사항) 최소 현지 부품 사용 비율 충족, 노동력 훈련을 통한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 (혜택사항)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및 관세 면제, 혜택, 토지 장기 임대, 저리 대출 등

-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 수출 기대효과가 높은 전자제품 제조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 유치, 전자 분야 연구 및 개발·개발 혁신 지원 계획
- 글로벌 가전 기업은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신규 투자 혹은 투자 확장 계획 발표
- LG는 '90년 진출하여 TV, 세탁기 생산, 삼성은 '09년 진출하여 TV, 모니터, 휴대폰 생산
- 보쉬 가전 모기업인 BSH 인터내셔널은 MENA 지역 최초로 이집트에 약 5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16만m2 규모의 공장을 설립 중. '24년 말 완공 시 연간 3만 5,000대의 스토브를 생산하여 중동·아프리카, 튀르키예로 수출 예정
- '24.9월 튀르키예 가전제품 제조사 베코(Beko)가 약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14,000m2 규모의 복합단지 개관. 현지 부품 50%를 사용하여 베코 및 최근 인수한 월풀(Whirlpool), 아리톤(Ariston), 인데시트(Indesit), 히타치(Hitachi)의 냉장·냉동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 약 150만 대 생산 예정이며, 생산량의 60%는 중동·아프리카 및 유럽에 수출할 계획임. 연간 수출액은 약 2.5억 달러 목표

* Beko 관계자는 '22.7월에 공장 부지 확보, '23년에 운영 등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골든 라이선스의 덕분이라고 밝힘 (DailyNews, '24.9.8)

• (휴대폰) 이집트 휴대폰 제조 산업 육성 추진 계획 발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현지 생산 확대 및 제3국 수출 촉진

- 이집트를 중동·아프리카 휴대폰 제조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추진
- 삼성, OPPO, Vivo, Xiaomi, NOKIA, ACE 등이 현지에서 휴대폰을 생산 중
 - * 삼성 베니수에프 공장에서 연간 500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 1,400개의 일자리 창출
 - * OPPO와 Xiaomi도 각각 이집트 내에 공장 운영, OPPO는 450만 대의 휴대폰 생산
 - * ACE(프랑스)는 이집트 기업 SICO와 함께 휴대폰 생산 중
- '23.2월 이집트 의회는 '23년 대통령령 제67호를 승인, 휴대폰 현지 생산 독려를 위해 휴대폰 현지 생산에 필요한 수입 부품(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세를 기존 5~30%에서 2%로 하향 조정
 - * 이집트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독려, 인센티브는 현지 생산 비율 50% 이상 충족 시 지급
- 정부는 휴대폰 제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해 약 6억 이집트 파운드 투자(신기술 단지과 스마트시티 구축 및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인력 개발 지원 포함)

• **(석유화학) 이집트는 수출지향형 석유화학 산업 발전을 위한 '24년까지 장기 전략 수립, 그의 일환으로 주요 프로젝트 착수 계획, 외국인 투자도 활발**

* '02~'22년 석유화학 마스터플랜을 계승해 '24년 이후에도 석유화학산업 육성 추진 지속

- 이집트 석유부는 '35년까지 총 190억 달러를 투자해 11개의 신규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진 및 연간 1,50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목표
- 아인 소크나(Ain Sokhna)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탄올 및 암모니아 산업단지 1단계 프로젝트* '25년 완공 예정
- '24년 상반기 수출은 화학 분야만 40억 달러로 비석유 분야의 20% 규모, 반면 플라스틱은 12억 달러로 3% 성장하였고, 화학 분야 수출의 약 29% 차지
- * 주력 수출품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탄올, 암모니아, 비료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튀르키예, 이탈리아, 스페인, 사우디, UAE 등
- Anchorage Investments는 25억 달러를 투자해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내 프로필렌, 에틸렌 등 생산 석유화학단지 건설 추진 중
- 인도 FLEX PET사는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월 3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생산공장을 SCZone에 건설 중이며 '25년 중반 완공 예정
- '24.6월 수에즈운하경제구역과 중국 석유화학 기업 BEFAR, 화학물질 생산 프로젝트 추진, TEDA 아인소크나에서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투자금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는 30만m2로 795개의 일자리 및 연간 2.3억 달러의 수익 창출 예상
- * (1단계) 연간 생산 목표는 △가성소다(10만 톤), △염산(5만 톤), △표백제 및 섬유용 탈색제(4만 톤), △브롬 및 그 유도체(1만 톤) 등임 → (2단계) △염소, 폴리에테르, 폴리우레탄 제품으로 생산라인 확장, △자동차 및 건축 자재 등 일부 산업의 현지 수요 충족 목표, △고품질 유리 및 기타 산업 제조에 필요한 소다회 제품 생산 → (3단계) 새로운 화학 화합물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현지 C2-C5 자원의 활용 극대화
- 중국 화학 회사 Chemtics사, 소크나 산업단지 60만m2 규모에 3,000만 달러 투자로 연간 40,000톤 이상의 차아염소산칼슘 생산 예정, '25.5월 첫 단계 시작

□ **(자동차) 현지 생산 확대, 친환경 차량 보급, FDI 유치로 자동차 제조업 육성**

• **이집트 정부는 '22.6월 '자동차산업 발전전략(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 현지 생산 확대, 친환경 차량 보급,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현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자동차 부품 현지화를 통한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수입 부품 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수출국으로 성장 목표

* 현지 자동차 제조는 단순 조립 수준, 향후 연간 50만 대 생산하여 10만 대 수출 목표

•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기구로 2개 기구 및 2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 ① 자동차산업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the Automotive Industry)가 산업 정책 수립

* 23.8월 마드불리(Madbouly) 총리는 이집트 자동차산업최고위원회(SCAI)와의 회의에서 자동차 제조업 육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

- ② 정책 실현을 위한 AIDP(National Automotive Development Program) 인센티브
 - * 국내 부품 사용 45% 충족 시 전기차 구매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인센티브 지원
- ③ 상공부 내 자동차산업 담당국(Automotive Industry Unit) 신설
 - * AIDP 운영을 위해 상공부 내 신설, 인센티브 규제 및 가이드라인 개발
- ④ 친환경자동차산업기금(Eco-friendly Automotive Industry Support Fund) 마련
 - *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추진 기관 및 인센티브〉

구분	역할 및 세부 지원 내역
자동차산업최고위원회 (Supreme Council for the Automotive Industry) 설립	•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관리 기구 - (업무) △산업 정책 수립과 규제 완화 담당,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협력 강화, △전기차 및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 지원, △법적 및 행정적 개혁을 통해 이집트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추진
국가 자동차 발전 프로그램 (National Automotive Development Program, 이하 AIDP)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 (지원) △현지 생산 부품 45%를 충족한 제조회사에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국내 생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5만 파운드(약 1,033달러)의 현금 인센티브 제공, △거주 및 상업지역에 일정 비율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한 건설사에 세금 혜택 등 * 초기에는 승용차, SUV, 마이크로 버스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지원 예정 * 투자 지원 인센티브 및 세금 혜택은 법률 No.72 of 2017을 따름
상공부 내 자동차산업 담당국(Automotive Industry Unit) 신설	• AIDP 운영 담당 - (업무)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 준수 가이드 개발, △현지 부가가치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조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신규 투자자 유치와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친환경자동차산업기금 (Eco-friendly Automotive Industry Support Fund)	• 탄소 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 △전기차 제조회사와 소비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친환경 자동차 제조 기술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자료: 이집트 정부 사이트(sisi.gov.eg) 자료 편집

- **최근 GM, Nissan, 볼보 등의 글로벌 기업과 GB Auto, Kasrawy, MCV 등이 AIDP 참여를 희망하며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조립 생산을 시작하는 추세**
 - GM의 쉐보레 옵트는 AIDP에 등록된 최초의 신모델, 최근 GM과 알 만수르는 이집트에서 전기자동차 공동 제조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Nissan은 이집트 내 연간 5만 대를 생산하며 점유율 13.5% 차지, 누적 투자액 2억 3,500만 달러이며 '26년까지 5,590만 달러 추가 투자 예정
 - 이집트 기업은 GB Auto가 Chery를, Kasrawy가 중국 Jet Tour와 Jac 모델을 현지 생산 예정이며, MCV는 '23.9월 볼보와 유럽 수출용 전기버스 부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 부품의 50%는 이집트 내에서 조달 예정

- 이집트 정부는 현지 자동차 제조사의 현지 부품 조달 비율에 따라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할인율을 10~80% 차등 적용

〈이집트 자동차 제조업 투자기업 관세 할인율〉

현지 부품 조달 비율	관세 할인율	현지 부품 조달 비율	관세 할인율
20% 이하	10%	41 - 50%	50%
20~30%	30%	60% 이상	80%
31~40%	44%		

자료: 이집트 투자청(GAFI)

- 2024/25 회계연도 정부 예산에 자동차산업 전략 지원금 5억 이집트 파운드(1,000만 달러) 배정, 특정 산업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자동차산업이 유일

* 이외 산업 공통 경기 부양 예산으로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에 약 5억 달러,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지원금 약 1억 달러, 산업 및 농업 등 생산 부문 금융시설 이자 보조금에 약 2억 달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약 1,500만 달러 배정

- '23.3월 신행정수도 인근 아인 소크나 지역에 중동 최대 자동차 도시 완공

- 24만km² 부지에 자동차 4,000대 이상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보유
- 이외 브랜드 전시장, 검사 및 유지보수 센터, 자동차 부품 보관창고, 자동차 구매, 은행 지점 오픈 등 자동차 구매 및 산업 투자 관련 원스톱 인프라 구축

□ (섬유·의류산업) 이집트의 두 번째 규모의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

- 이집트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식품산업에 이은 핵심 산업으로 '23년 국가 GDP의 3%를 차지, 향후 '29년까지 5.5% 성장 전망

- '14~'21년간 신규 기업 6,740개사, 노동인구 1,800만 명 중 138만 명(7.7%) 종사

- 이집트는 최고급 면화 생산지로 섬유·의류 봉제산업의 수직적 생태계 구축

* 이집트는 면화 재배부터 원사, 직물, 필라멘트 원사·섬유 제조, 기성복 생산까지 전체 생산 공정이 자국 내 이뤄지는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면화 및 섬유 클러스터 보유

- 섬유·의류 부문은 이집트의 중요 수출 분야로 전체 수출의 약 12% 차지, '21년 17억 달러에서 '23년 24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

- 2020/22 회계연도의 수출은 기성복이 12.2억 달러, 직물이 8.5억 달러, 면화가 1.6억 달러이며, 의류와 직물은 전년 대비 각 41.9%, 31.3%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이탈리아, 독일), 중동(튀르키예, 사우디, 요르단) 아프리카(알제리, 튀니지, 나이지리아, 모로코)

- 이집트의 섬유·의류 수출은 미국과 유럽이 81% 차지, 對EU 수출은 FTA 활용, 對미국 수출은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협정을 활용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고, 저렴한 인건비, 주요 시장으로의 신속한 납기 등이 장점
- 정부는 '19~'24년간 섬유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섬유·의류 수출 증가를 위해 240억 이집트 파운드(4.9억 달러)를 투입하여 섬유 제조 공정 현대화 추진
 - 주로 국영 섬유 기업과 면화산업의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에 집중
 - * 장비: 새로운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방직, 직조, 염색, 재단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과 협력하여 첨단 방직기와 직조기를 설치 중
 - * 공장 신설 및 개보수: 주요 국영 섬유 공장의 현대화 추진, 특히 엘 마할라 지역의 Ghazl4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직 공장으로 완공('23.6월)
 - * 기술 훈련: 이집트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 신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 강화
- '24년 8월, 이집트 방직 및 직조산업의 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회의 개최
 - * 공기업부 장관, 농림부 장관, 방직/면화 기업 및 고위 관계자 참가
 - 면화 가치 향상을 위해 면화의 원자재 수출을 고부가가치 완제품 수출로 전환, 제조 역량 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이 목표
 - 이를 위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면화 공급, △첨단 가공 방법으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면화 농가를 위한 공정한 가격 책정 메커니즘 구축, △면화 재배 확대를 통한 수입 의존도 축소, △기계·기술 업그레이드 및 기술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이집트는 국영기업이 방직 50%, 편직 60%, 제직 60% 차지. 반면 의류 부문은 민간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민영화 확대 시행 중

□ (재생에너지) '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2%, '40년까지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

- 이집트 환경부는 '22.5월 정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SDS 2030 전략과 연계한 국가 NCCS 2050(기후변화 전략)*을 발표, △저탄소 산업 개발 확대,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기금 인프라 마련, △녹색 채권 발행 등 추진 중
 -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2050
- '22.11월 COP27 개최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및 탈탄소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35년까지 태양광 26%, 풍력 14% 등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42%까지 증대 목표
- 이집트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바, '24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은 7.1% 수준으로 추정되며, '26년까지 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이집트는 여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망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중 Benban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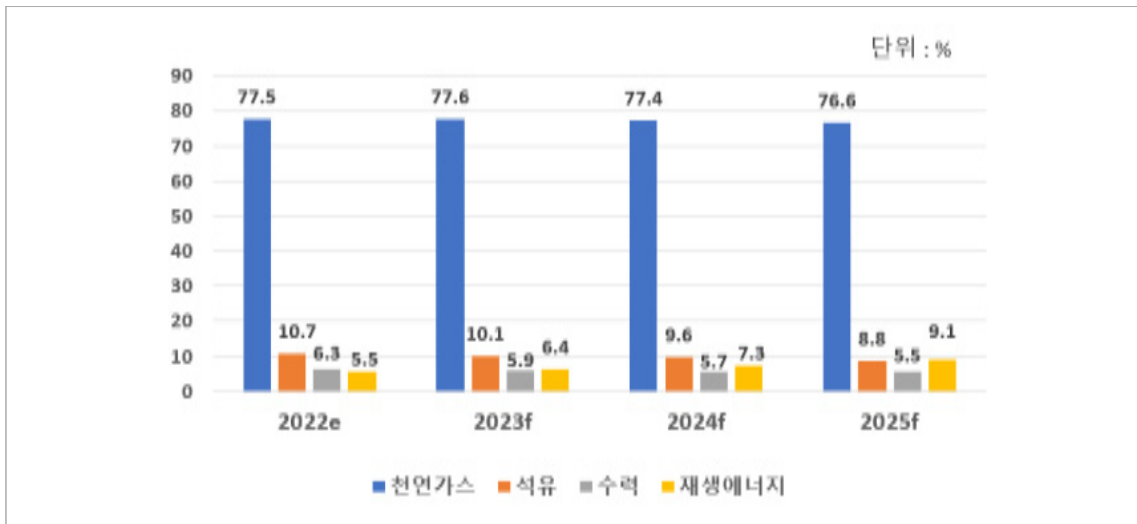
〈2022~2026년 이집트의 분야별 전력 발전 동향〉

(단위: TWh(테라와트))

구분	2022e		2023f		2024f		2025f		2026f	
	용량	비율	용량	비율	용량	비율	용량	비율	용량	비율
천연가스	183.6	84.2	187.1	83.8	192.4	83.2	196.4	82.0	200.3	80.4
석유	9.9	4.5	9.9	4.4	9.6	4.1	7.2	3.0	5.7	2.3
수력	13.5	6.2	13.2	5.9	13.1	5.7	13.2	5.5	13.4	5.4
재생에너지	11.3	5.2	13.0	5.8	16.3	7.1	22.8	9.5	29.8	12.0
합계	212.5	100	222.1	100	230.1	100	239.4	100	249.3	100.0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25년은 전망치
자료: Fitch and Solutions

〈2022~2025년 이집트의 분야별 전력 발전 비율〉



자료: Fitch and Solutions(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 이외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폐기물 관리 규제청(WMRA)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나일강 수자원 보호를 위해 '25년까지 이집트 10개 주에 29억 달러를 투입해 담수화 시설 건설 예정

□ (그린수소) 그린수소 인센티브 제정을 통한 그린수소 허브 실천 구체화

- 이집트는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22.12월, COP27에서 '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를 발표하며 그린수소의 국제적 허브를 목표
 - '40년까지 920만 톤을 생산하고 국가 GDP를 100억~180억 달러 확대 예정
 - * 이집트는 태양광, 풍력 등이 풍부하여 그린수소 발전에 유리한 환경 보유
- '24.2월 '그린수소 및 파생상품 생산 프로젝트 인센티브'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유럽 각국과 중국 등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이집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협력 비중이 높고, UAE, 사우디, 인도,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음
 - * 이집트와 중국건축공정총공사의 협력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에코플랜트가 참여 중임
- 그린수소 분야 대표 사례는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에 위치, 아프리카 최초 통합형 그린수소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 노르웨이 스카텍 ASA(Scatec ASA), UAE 퍼티글로브(Fertiglobe),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 이집트국부펀드인 소버린 펀드(TSFE)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EBRD(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가 100MW 규모의 수전해 시설 건설 자금을 지원
 - * 연간 1만 5,000톤의 그린수소 생산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그린암모니아를 생산, 이를 통해 약 1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가능, 일부 암모니아는 수출 예정

□ (ICT산업) 이집트는 'ICT 2030' 및 'Digital Egypt'를 통해 국가 전반에 I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 전환 추진 중,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국가 GDP의 5%를 차지하며 관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1.1% 성장

- 정부는 'ICT 2030'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2/23 회계연도의 ICT 분야는 GDP의 5% 차지하며 관광업 다음으로 가장 높은 41.4%의 성장률을 보임
- 'Digital Egypt'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① 디지털 이집트 e-플랫폼 구축, ②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③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력 양성에 집중
 - 세부적으로는 ① Digital Egypt Platform을 통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 제공, ② Digital Egypt Innovation Centers(DEIC)를 통한 혁신 및 기업 지원, ③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e러닝 및 디지털 헬스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외 E-Tax 시스템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속 추가

디지털 이집트 e-플랫폼

- 디지털 이집트 e-플랫폼은 '20.8월 34개 서비스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여 '25년까지 모든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할 예정, '24년은 168개 서비스 출시 목표
- 서비스 : 법무부, 복지부 등 각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문서, 면허증 발급, 재산세 납부, 의료 서비스, 공증, 부동산, 법인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TAMKEEM 포털(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Economic Court Digital Platform(경제 법원 디지털 플랫폼), Egyptian Knowledge bank(원격 교육 서비스) 등 추진
- 예산 : '23년 기준으로 이집트는 6억 이집트 파운드를 투자

자료 : 이집트 통신정보부

• '22~'26년 '디지털 아웃소싱 전략'을 수립, '26년까지 90억 달러 수출 목표

- '23년 이집트의 디지털 수출은 62억 달러로 '22년 49억 달러에서 26.5% 증가
- IT 분야의 GDP 기여도는 2021/22 회계연도 2.4%에서 2023/24 회계연도 5.8%로 성장
- 아웃소싱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지원 및 디자인 서비스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며, 특히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은 '23년 1년 동안 54.2% 성장해 3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
- 주요 수출국은 미국, 독일, 영국 등이며,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확대 중
 - * 아웃소싱 서비스는 지난 5~6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로, 약 5,000개사가 활동 중
 - * IT 연수생이 '18/'19년 4천 명에서 '23/'24년 40만 명으로 증가, '29/'30년까지 100만 명 육성 목표

□ (철강) 아프리카 내 최대 철강 생산 국가, '23년 기준 약 700만 톤 생산능력 보유

• 이집트는 아프리카 제1위 철강 생산국이며, 중동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

- '20년 1,03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으나 코로나 및 경제위기 여파로 '21~'23년은 각각 820만 톤, 980만 톤, 8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음
 - * Al-Ahly Pharos 투자회사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철강 수요 감소는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지연으로 발생, '24년 외환보유고 개선으로 실행정수도, 엘-다바 원자력 프로젝트, 대규모 제조공장 건설 추진으로 수요 회복 기대
- 이집트 전체 철강 생산 중 70%는 봉강형류(철근, 형강)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판재류(열연강판, 냉연, 후판 등) 등
 - * 주요 생산기업은 Ezz Steel, Beshay Steel, Suez Steel 등

• '23년 철강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로, 주로 사우디, 튀르키예,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수출하고 있음

- '24.8월 유럽무역위원회는 이집트 EZZ Steel사 열연평강판 수출품에 반덤핑 조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 감소 우려
 - * EZZ Steel은 이집트의 유일한 열연 평강 수출기업

• 이집트 내각은 '23.9월 10억 달러 규모의 강판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철강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으며, 해당 공장에서는 연간 180만 톤 평강 생산 계획

- 산업단지는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인근 150만㎡ 부지에 건설 예정으로 이집트 정부와 글로벌 기업 2곳이 합작으로 진행 계획
- 글로벌 기업 2곳에 대한 정보는 밝혀진 바 없으나('23.9월 기준), 그 중 하나는 이집트 최대 철강기업인 EZZ*가 될 것으로 예상
 - * EZZ는 이집트 재계 6위 기업으로 4개의 제강 공장 보유, 연간 700만 톤 철강 및 내수 점유율 60%

□ (건설업) 신행정수도,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신행정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지역에 714km² 규모, 650만 명이 거주 가능한 신행정수도(NAC)* 건설 마무리 단계. 대통령궁, 국회, 국내외 정부 기관 대규모 이전 중임

* NAC : New Administrative Capital

- 34개의 이집트 정부 청사, 32개 부처 등 정부 기관 80% 이상 이전 예정
- 21개의 주거 지역과 25개의 용도별 전용* 지역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 진행 중
 - * 전용 지역 : 컨벤션 센터, 의료, 정부 부처, 국제기구 지역 등
- 교육기관 2,000개, 병원 시설 600개, 모스크 1,200개, 호텔 400개를 포함해 공원, 전기철도 시설, 태양에너지 플랜트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건설 수요 집중

- (엘-다바 원전) 이집트 원자력청(NPPA) 발주 및 '17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Rosatom 자회사인 ASE가 수주, 이집트 북부 해안 지역 엘-다바 인근에 총 4,800MW 규모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

- 총 사업비 300억 달러로 이 중 85%는 러시아가 22년간 상환하는 장기 차관 형태로 제공, 나머지 15%는 이집트 정부의 건설 비용으로 충당
- '22.7월 1호기 건설 착공 이후 '11월 2호기 착공했으며 '29년 준공 목표로 진행
- '22.8월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2차측(Turbine Island)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사로 참여 중
 - * '29년까지 터빈 건물, 수처리, 냉방시설 등 총 82개의 구조물 건설 및 터빈과 발전기 설치

□ (방산) '23년 기준 국방비 약 31.6억 달러, '23년 무기 수입국 순위 7위

- 이집트 국방비는 '23년 31.6억 달러를 배정하여 전년 대비 30% 감소, 이집트 주변 정세 불안으로 증가세였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축소

- 수단,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 주변국 정세 불안으로 이집트 국방예산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음
-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예산 변동 폭이 큰 특성이 있으며, 국방예산의 높은 비중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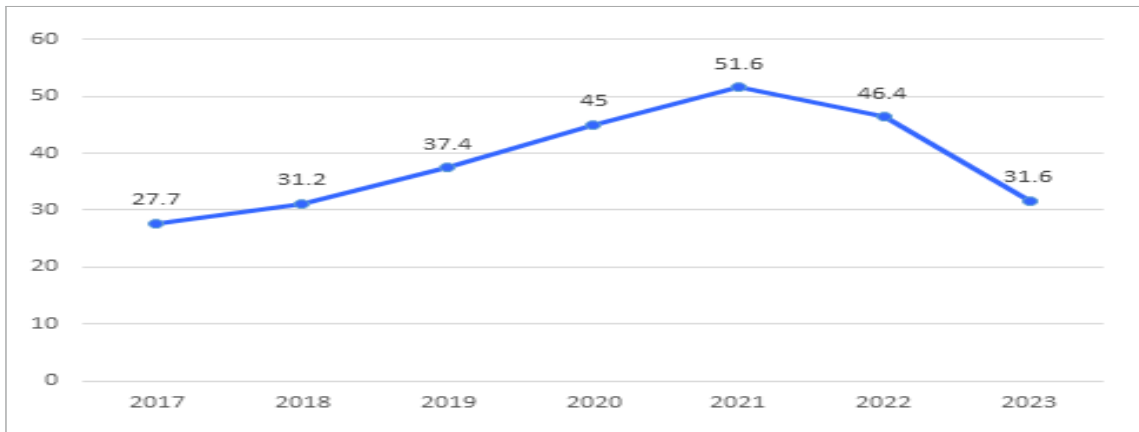
* 미국은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이후 매년 약 13억 달러를 군사 원조금으로 지원

〈2019~2023년 이집트 국방예산 동향〉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억 달러)	37.4	45.0	51.6	46.4	31.6
증가율(%)	19.8	20.3	14.7	△10.1	△32.0

자료: Trading Economics('24.9월 기준 최신 자료)

〈2017~2023년 이집트 국방예산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KOTRA 카이로 무역관 재편집)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17~'21년간 이집트의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5.7%로 인도, 사우디에 이어 세계 3위, '23년 기준 4%의 점유율로 세계 7위 차지
 - 이집트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러시아가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21%, 이탈리아 15%, 독일 11%, 미국 6.5% 등임
 - '13년 쿠데타 이후 이집트 정부의 무기 수입처 다변화 정책으로 미국의 이집트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대폭 감소
- 주요 방산 물자의 노후화로 전차 및 장갑차(육군), 초계함 및 호위함(해군), 훈련용 전투기(공군) 등의 방산 물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라. 정책·규제 환경

□ 그린수소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원 법률 제정,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 전망

- 이집트는 '22년 12월, COP27에서 '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를 최초 발표, 이를 추진하기 위해 '24.2월 그린수소 및 파생상품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법률(Law No. 2 for Year 2024) 발의
 - '30년까지 연간 320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40년까지 약 3배인 920만 톤 생산, 이를 통해 국가 GDP를 100억~18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 인센티브 적용 대상 : △수소 발전소, 생산량 일부를 수소 생산에 할당하는 담수화 플랜트 사업 △생산량의 95% 이상을 그린수소와 담수화 플랜트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시설 △그린수소 저장 및 운송, 유통 프로젝트 △그린수소 발전소에 필요한 원료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주요 인센티브 혜택 : △현금성 투자 인센티브 지원, △생산에 필요한 제품 및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단독 참여 승인(Single Approval), △수출자 등록 면제, △외국인 고용 허용, △특별 세관 설립, △부동산 및 관세 면제 가능 , △이집트 항구 이용료 할인, △토지 및 창고 사용료 할인 등
- 적용 조건 : △프로젝트 계약 5년 내 운영 △총 재원의 70% 이상 해외에서 외화 조달, △현지 부품 20% 사용, △직원 교육 및 기술 이전 프로그램 마련, △ 사회적 책임 이행(지역 개발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 이집트는 그린수소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협력 비중이 높고, UAE, 사우디, 인도,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음

* 이집트와 중국건축공정총공사의 협력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SK에코플랜트가 참여 중임

□ (ESG 정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글로벌 ESG 본격 도입

- 이집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포용,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기업 규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간 부문의 ESG 확대를 점차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디지털 포용, 투명한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이집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이집트 금융감독청(FRA)은 ESG 의무 공시 규정 강화, 환경 및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의무 부과

* '21.7월 제107호 및 제108호(Decree No.107 108/2021) 공표, '23년부 이집트 주식시장(EGX)에 상장 및 자본금 1억 이집트 파운드 이상의 비금융 기업은 ESG 보고서 의무 제출

- 최근 이집트의 투자유치국 GAFI(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가 세계투자진흥 기관협회(WAIPA)의 ESG 지수에서 전 세계 74개 투자기관 중 1위 차지

* 이집트의 그린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골든 라이선스 발급 등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

〈이집트 정부의 ESG 추진 사례〉

구분	정부 추진 사례
E (환경)	- 이집트 기후변화 전략 : 이집트 정부는 2030 기후변화 전략을 발표, '30년까지 총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4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4.2월 그린수소 분야 인센티브 제정,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개발 확대 중 - 녹색 채권 발행 : 이집트는 중동·북아프리카 최초로 '20년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투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을 마련(만기 5년, 수익률 5.25%)
S (사회)	- 디지털 사회 포용 프로그램: 이집트 정부는 Digital Egypt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집트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대표적으로 '타카풀'과 '카라마' 같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빈곤층 및 장애인을 지원하며,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
G (거버넌스)	투명한 정부 및 디지털화: 이집트 정부는 'Digital Egypt' 계획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며 부패를 줄이고, 행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 가능. 부처 간의 데이터 통합 및 디지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버넌스 개선을 촉진 * GAFI는 ESG 실천 강화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

자료: 현지 언론 종합(Business Today Egypt 등)

〈이집트 기업들의 ESG 추진 사례〉

구분	(기업명) 추진 사례
E (환경)	(Vodafone Egypt) 영국에 본사를 둔 이집트 통신회사 - 에너지 효율화 및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통한 탄소 배출 감소 프로젝트 추진 (Abu Dhabi Islamic Bank, ADIB)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이집트의 투자회사 - 이집트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 (Siwa 태양광 발전) 이집트 서부 사막 지역에 위치한 시와 오아시스는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도시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정부와 지역 기업의 협력으로 추진
S (사회)	(Fawry) 이집트의 주요 전자결제 및 금융 기술 기업 - Fawry는 금융 포용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집트 내에서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외 계층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부 활동 진행 (Telecom Egypt) 이집트의 대표적인 국영 통신기업 -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교육 시스템을 지원 (Elsewedy Electric) 이집트의 대표적인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 -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 및 의료와 관련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 - 특히 Elsewedy Technical Academy를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G (거버넌스)	(Commercial International Bank(CIB)) 이집트의 최대 민간은행으로 ESG 거버넌스 관행을 선도 - 거버넌스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ESG 보고 시스템을 도입,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와 투명한 보고 절차를 통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ESG 성과를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책을 채택 중 - Ezz Steel 이집트의 주요 철강 회사 중 하나 -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특히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감사 및 법적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음

자료: 현지 언론 종합(Business Today Egypt 등)

□ (수입 정책) 신규 통관 시스템(Advanced Cargo Information) 및 공장 사전 등록제 등

• (신규 통관 시스템) 이집트 통관법 제207조 39항에 따라 '21.7월부터 신규 통관 시스템(ACI) 도입, 과거 수기로 진행하던 통관 절차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 이집트로 들어오는 해상 또는 항공 화물은 출발지에서 선적 최소 48시간 전에 화물 데이터 및 문서(송장, B/L 등)를 ACI 시스템에 등록 필요
- 수출업체는 최소 24시간 전 필요한 데이터를 선사에 전달해 화물을 원활하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집트 수입업체는 세금 ID와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er) 사본을 선사에 전달해야 함
- ACI 시스템 등록 후 고유번호(ACID)가 발급되면 ACID 정보와 이집트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출 서류에 명시해야 함

* ACID 번호 19자리, 컨사이니 및 이집트 수입업체 Tax Number, 수출업자 및 포워딩사 식별번호

** 세부 절차 및 필요서류는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집트 신규 통관 시스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참고

- '24.5월 이집트 관세청은 이집트 최대 수입품인 자동차에 대한 ACID 발급을 전면 중단, '24.9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알려져 있고, 재오픈 시기도 불명확

• (공장 등록제) 이집트 통상산업부는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 억제에 위해 현지 생산이 가능한 28개 품목 대상 수출품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중

* '23.10월 이집트 관세청은 '23년 '수입 공문 제15호'를 발표하여 37개 화장품 HS 코드에 대해 GOEIC 공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 화장품은 이집트의약청(EDA)의 사전 승인을 통해 수입

- '16.3월 최초 도입됐으며, 대상 품목은 선적 전 인증(COI, Certification of Inspection)을 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하며, 선적 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집트 수출입청(GOEIC)에 제조공장 등록 필수
- 수출입청(GOEIC) 공장 등록 필요서류는 공장면허증, 법적 지위 확인서, 상표권 증명서, 환경 인증 증명서, 품질보증서 등임
- 제출 서류별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이 필요, 품질보증서의 경우 2년 주기 갱신 필요
- 공장 등록 필요 주요 품목은 △가전제품, △오토바이, 자전거(이동 수단), △바닥재, 화장실 건축자재, 벽돌, 타일, 가구, 시계(건축자재), △비누, 화장품, 기저귀, 화장지, 장난감, 옷, 카펫, 섬유(생필품), △우유, 낙농품, 과일, 식용유, 초콜릿, 다과, 설탕, 시리얼, 주스(식료품) 등임
- 현재('24.9월) 기준 기존 규정대로 해외 제조공장 등록증 만료 30일 전까지 등록증을 갱신하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정상 수입 가능

2. 시장 분석

- 가. (시장 특성) 유럽·중동·아프리카 잇는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로 경제 영토 확장
- 나. (수출) 제조업 육성 통한 수출 증대 노력, 외화 확보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지속
- 다. (투자) 천연가스 개발, 제조업, 에너지(태양광, 수소 등) 중심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 라. (프로젝트) 원자력 발전소, 신행정수도, 철도 등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지리적 요충지)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보유

- 이집트는 거대 시장인 EU, GCC 산유국,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수에즈 운하를 통해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
- 지리적 이점을 활용, '98년부터 EU, 미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세계 주요국 및 글로벌 경제 연합체와 광범위한 FTA 체결
 - '98년 범아랍자유무역협정(GAFTA)을 시작으로 '99년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04년 EU, QIZ(미국, 이스라엘), '07년 튀르키예, '19년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 '21년 영국 등과 FTA 체결, '22.1월 BRICKS 가입
 - 중국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지속 강화되는 추세로, '05년 이후 약 8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하여 EU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

〈이집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명칭	발효일	주요 내용
범아랍자유무역협정 (GAFTA)	1998.1.1	• 회원국 : 아랍연맹 17개국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도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 부과 및 면제 대상 상이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9..2.17	• 회원국 : 동남아프리카 21개국 • 아프리카 최초의 무역 협정 • 남아공은 옵서버로 참여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나머지는 국가별 상이
이집트-EU 연합 협정 (Egypt-EU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 이집트-EU 15개국 간 FTA • 이집트는 對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 EU 회원국은 '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 예시 : 자동차 관세는 2010~19년 동안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 해제 및 관세 인하 또는 철폐
QIZ 협약 (Protocol on Qualified Industrial Zone)	2005.1.1	•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국 간 무역 협정 • 이집트,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10.5% 및 현지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무관세로 미국 수출 가능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 당시 이집트 3개의 지역에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 이후 '05.12월에 중앙델타를 4번째 QIZ로 지정
Agadir 협정	2007.3.27	• 회원국 :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모로코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 • 유럽-지중해 자유무역지대(EMFTA) 내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EU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음
이집트-튀르키예 FTA	2007.3.1	• 이집트의 對튀르키예 수출은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 • 튀르키예의 對이집트 수출은 이집트-EU FTA에 준해 4개 품목군에 따라 '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이집트-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FTA	2007.8.1	• EFTA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이집트의 對EFTA 수출은 16개 품목 이외 즉시 관세 철폐 • EFTA의 對이집트 수출은 '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이집트-남미공동시장 (MERCOSUR) FTA	2017.9.1	• MERCOSUR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 밀, 옥수수 등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 우유, 산업 제품은 발효 이후 4년 내 관세 철폐 • 기타 협상 품목은 8~10년 내 관세 철폐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2019.5.30	• '11.12월 가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통상장관 회의 시 '17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 및 '19년까지 관세동맹 달성 로드맵에 합의 • '19.5월 AfCFTA 발효, '21.1월 AfCFTA 협정 하에 무역 공식 개시 • '23.7월 기준 아프리카 55개국 중 54개국이 협정 서명 및 47개국이 비준 • 상품 무역의 90% 이상 관세 철폐, 7% 내외의 민감 품목은 향후 10~13년 내 완전 철폐 추진
이집트-영국 FTA	2021.1.1	•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최혜국 조항이 포함된 이-영국 FTA 체결 • 영국은 기존의 이집트-EU 협정 효과를 유지
BRICS	2024.1.1	• 이집트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에티오피아, UAE와 동시 가입

자료: 이집트 투자청(GAFI) 등 정부 발표 자료, WTO

□ (수에즈 운하) 2022/23 회계연도 이집트 총 GDP의 약 1.6% 차지, 세계 상품 교역의 12% 담당

- 수에즈 운하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기준 수에즈 운하 수입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57.6억 달러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 기록

- 수에즈 운하 통행 수입은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23 회계연도에 87.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연간 GDP의 비중도 2021/22년 1.5%에서 2022/23년에 1.6%로 상승했으나, '23.12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급감

* 수에즈 운하 수익(억 달러) : (FY 2020/21) 59.1 → (2021/22) 70.0 → (2022/23) 87.6억 → (2023/24) 57.6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해상 항로로 연간 세계 컨테이너 선적량의 30%, 상품 교역량 12% 및 해상 원유 수송량 10% 담당, 연간 통행 선박은 약 26,000척 수준
- 이집트 정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운하 193km 중 양방향 선박 통행이 가능한 구간을 75km에서 85km까지 늘릴 예정
- 수에즈 운하청은 '23년 'Green Canal' 계획 발표, '30년까지 수에즈 운하를 친환경 운하로 전환 계획, △하이브리드 시스템(태양열 패널-풍력 터빈)을 사용하여 항해 제어 스테이션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선박 엔진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 등 추진 중

□ (제조업 발달)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제조업 강국으로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 2022/23 회계연도 이집트 총 GDP 중 제조업 비중 15.7%, 전체 산업 중 비중 1위

* 2022/23 회계연도 제조업은 전년 대비 17.2% 성장하였으나 전체 점유율은 다소 감소

- 이집트는 아프리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MVA) 비중이 20% 이상으로 역대 최대 제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자료: UN Stats)

- 외국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섬유·의류,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이 발달해 있음

-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은 주로 현지 조립 방식으로 제조업이 형성되어 있고, 석유화학, 철강, 섬유류나 소비재는 대부분 현지에서 생산 중

- 2022/23 회계연도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6.0억 달러로 전체의 26.0% 차지, 서비스업(9.2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

- 과거에는 주로 원자재를 수출해왔으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최근 15년 동안 원부자재 수출은 감소, 반면 제조 완제품 수출 증가

* 현지 전자제품 제조사 Elaraby Group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 중

- 광물성 연료 수출은 꾸준히 감소하여 '23년 36%로 대폭 감소

-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23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비료, 의류(직물), 철강, 의류(편물) 등

- 제조업 촉진을 위해 수출 운임 지원, 금융 제공 등의 수출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국내 생산 부품 조달 비율에 따라 수출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례 증가

〈이집트 주요 수출 장려 프로그램〉

구분	주요 지원 내용
현지 제조 프로그램(DLMP)	• 제조 부가가치 비율에 따라 수출 거래 비용의 일부분 지원
아프리카 운송 프로그램(SAP)	• 아프리카국으로의 수출 운임비의 50%까지 지원
중소기업 프로그램(SMEs)	• 중소기업 수출 금액의 1~2%에 상응하는 금융 지원 혜택
수출 촉진 프로그램(EAP)	• 수출금액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수출액의 15~30% 금융 지원
상이집트 프로그램(UEBRP)	• 상이집트 및 국경지대 기업에게 DLMP 혜택의 50%까지 금융 지원
수출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IEIP)	• 직업교육, 전시회, 품질 인증 등의 비금융 서비스 지원
국가 자동차 발전 프로그램(AIDP)	• 자동차 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및 전기차 보급 지원 인센티브

자료: 이집트 재무부(MOF)

□ (인구) '24년 인구 1억 780만의 세계 14위 인구 대국, 30세 이하 비율 50% 이상

- '00년 인구 7,137만 명에서 '20년 1억 명 돌파, '24년 기준 1억 780만 명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중 3위, 전 세계 순위는 작년에 이어 14위 유지

*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 1위는 나이지리아(세계 6위), 2위는 에티오피아(세계 10위)

- '90년 약 5.2명의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15년 3.4명까지 감소했으나, '24년 기준 합계 출산율 3.1명으로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자료: MacroTrends)
- 연간 210만 명이 증가 추세, UN은 '30년 이집트 인구를 1억 2,800만 명으로 전망

- 인구의 약 51%가 30세 이하로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고, '24.5월 민간 및 공공 부문 월 최저임금 6,000파운드(약 123달러) 수준
- 다만, 급격한 인구 증가가 소비시장 확대의 효과를 불러왔으나 식량 부족에 따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경제난 심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의 각종 서민 지원금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 직면
- 이집트 빈곤율은 '18년 32.7%까지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23년 기준 빈곤율은 27.3%로 약 2,900만 인구가 빈곤층에 해당(자료: The world bank, Poverty data)

* '24년 기준 이집트의 빈곤율 기준 : 연 소득 10,300EGP 이하에 해당

나. 교역

□ 대외 교역 동향

- 이집트는 매년 400억 달러 내외 무역적자 발생, 정부는 무역 적자 폭 감소 노력
 - '18년 이후부터 '23년까지 연간 400억~450억 달러 수준의 무역적자 기록,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4.1~6월 203억 달러의 무역적자 발생
 - 밀, 옥수수, 대두 등 주력 식품 및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제조업 또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 보유
 - '22~'23년 심각한 외화 부족으로 일반 수입품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도 애로를 겪으며 수출입 축소, 교역 감소
- 반면 달러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수입 통제 여파로 '24.6월 기준 이집트의 총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633억 달러 기록
 - '23년 달러 부족에 따른 강력한 수입 통제로 '22년 대비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24.1~6월 수입액은 4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의 소폭 상승
 - 외화 부족 상황은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215억 달러 기록

〈2020~2024.6월 이집트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6월	
					금액	증감률
총 교역	997	1,328	1,460	1,253	633	1.2
수출	293	436	516	421	215	△1.5
수입	704	892	944	832	418	2.7
무역수지	△411	△456	△428	△411	△203	7.5

자료: Global Trade Atlas('24.11월 기준 최신 통계), '24년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표기

□ 수출 동향

- (국가별 수출) '24.6월 기준 이집트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215억 달러 기록, 주요 수출 대상국은 사우디, 이탈리아, 튀르키예, UAE, 미국 등이고, 한국은 64위 수출 대상국임

* '23년 한국은 이집트의 23위 수출 대상국

- '24.6월 기준 이집트의 국가별 수출액은 사우디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6.6억 달러로 1위를 차지(점유율 7.7%)했으며, 다음은 이탈리아가 15.9억 달러, 튀르키예가 15.1억 달러, UAE 14.7억 달러 순
- 사우디는 작년 10.9억 달러 수출, 점유율 6.3%로 3위 수출국 기록
- FTA 체결국과의 교역 증대, 對한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24.6월 이집트의 對한국 수출은 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

- 수출 상위 10개국 중 리비아를 제외한 9개국(사우디, 튀르키예, EU 국가, 미국(QIZ), UAE 등)이 이집트와 FTA를 체결,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이집트의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1~2024.6월 이집트의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6월		
No.	국가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사우디	22.4	5.1	25.2	4.8	26.8	6.4	16.6	7.7	23.3
2	이탈리아	28.8	6.6	33.8	6.5	31.4	7.5	15.9	7.4	△6.5
3	튀르키예	29.9	6.8	39.6	7.6	37.7	9.0	15.1	7.0	△34.1
4	UAE	17.6	4.0	19.6	3.8	22.1	5.3	14.7	6.8	98.1
5	미국	25.4	5.8	23.0	4.4	19.4	4.6	11.4	5.3	17.2
6	리비아	9.6	2.2	12.1	2.3	18.3	4.4	8.7	4.1	26.1
7	스페인	18.7	4.3	38.5	7.4	17.6	4.2	8.1	3.7	△14.2
8	영국	11.7	2.7	17.7	3.4	12.3	2.9	7.9	3.7	27.5
9	네덜란드	6.9	1.6	18.2	3.5	9.4	2.2	5.6	2.6	△3.2
10	프랑스	10.9	2.5	17.1	3.3	8.5	2.0	5.6	2.6	23.4
64	한국	1.1	0.3	1.0	0.2	1.1	0.3	0.5	0.2	△2.6
총 수출액		436.1	100.0	521.2	100.0	420.6	100.0	215.0	100.0	△1.5

주: '24년 1~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Trade Atlas('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품목별 수출) 천연가스 및 원유 등 광물자원 수출이 전체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액 증감이 구조적으로 발생함
 - 광물성 연료 이외 과일류, 질소비료, 철연, 구리선 등 현지에서 재배하거나 생산 제품의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삼성, LG 등 글로벌 가전 기업이 이집트 내 TV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니터와 프로젝터 제품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수출 상위 10대 품목 이외 감자 등 채소류 및 과일, 섬유 및 기성복, 알루미늄 등의 수출액도 '19년 이후 연간 3억~5억 달러 수준에서 견고한 성장세 유지

〈2021~2024.6월 이집트의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

No.	구분	HS Code	2021	2022	2023	2024.1~6월		
	품목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금	7108	11.1	16.2	18.3	13.3	6.2	147.0
2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2710	63.2	51.2	18.4	12.7	5.9	29.0
3	감귤류의 과실	0805	8.9	9.0	10.1	9.7	4.5	15.8
4	질소비료	3102	16.7	27.6	18.6	8.2	3.8	△20.0
5	철연	8544	7.7	9.7	11.6	6.6	3.1	28.1
6	석유와 역청유(원유 한정)	2709	31.9	3.2.0	25.5	6.0	2.8	△39.3
7	모니터와 프로젝터	8528	10.9	9.3	7.8	4.7	2.2	19.3
8	구리선	7408	3.9	4.3	6.6	4.4	2.0	40.6
9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08	10.6	6.2	10.2	4.2	2.0	△18.9
10	시멘트	2523	4.6	6.8	7.7	4.2	1.9	△11.3
총 수출액			436.1	521.2	420.6	215.0	100.0	△1.5

주: 2024년 1~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Trade Atlas('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對한국 수출) '24.6월 기준 이집트의 對한국 수출은 광물성 자원(HS Code 27)이 전체 수출액 91%를 차지하고 있음
 - 광물성 자원 이외에는 식물, 편직물, 과실류 등을 수출

□ 수입 동향

• (국가별 수입) 이집트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미국, 독일 등이며, 한국은 '24.6월 기준 이집트의 15위 수입 대상국

* '23년 한국은 이집트의 18위 수입 대상국

- 중국은 '00년대 이후부터 이집트의 제1위 수입 대상국 지위를 차지했으며, '19년 이후부터는 이집트 수입시장 점유율 15% 내외를 기록 중
- '24.6월 기준 對중국 수입액은 64.4억 달러이며 점유율은 15.4%로 압도적 1위, 다음은 사우디 29.6억 달러, 러시아 29.5억 달러, 미국 28.1억 달러 순
- 동 기간 한국은 이집트의 15위 수입 대상국으로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1.8%의 시장 점유

• 수입 상위 10개국 내에는 BRICS 국가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24년 이집트의 BRICS 가입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꾸준히 증가 예상

• 수입은 2023년 시행했던 외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환 위기 이전인 '2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이집트 파운드의 가치 하락으로 수입 여력 감소

〈2021~2024.6월 이집트의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1~6월		
No.	국가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중국	144.1	16.2	147.6	15.3	129.4	15.6	64.4	15.4	5.6
2	사우디	68.5	7.7	78.9	8.2	52.1	6.3	29.6	7.1	34.7
3	러시아	35.8	4.0	42.7	4.4	49.6	6.0	29.5	7.1	5.4
4	미국	63.9	7.2	69.2	7.2	53.5	6.4	28.1	6.7	△2.3
5	독일	42.2	4.7	41.1	4.3	41.0	4.9	20.2	4.8	3.0
6	브라질	23.0	2.6	37.3	3.9	29.7	3.6	15.5	3.7	12.4
7	튀르키예	37.5	4.2	38.2	4.0	27.8	3.3	15.1	3.6	6.9
8	우크라이나	20.6	2.3	12.5	1.3	22.6	2.7	15.1	3.6	36.1
9	이스라엘	0.6	0.1	19.5	2.0	22.1	2.7	15.0	3.6	34.8
10	이탈리아	31.4	3.5	36.0	3.7	32.3	3.9	14.9	3.6	△5.7
15	한국	17.5	2.0	19.1	2.0	15.3	1.8	7.6	11.4	1.8
총 수입액		892	100	961.9	100	831.6	100	418.0	100	2.7

주: 2024년 1~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Trade Atlas('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품목별 수입) 다운스트림 분야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수출한 천연가스 및 원유 정제품 다수를 재수입하고 있으며, 밀의 경우에도 연간 소비량 1,800만 톤 중 약 1,20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밀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가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우 사태 이후 곡물 가격 상승으로 '22년 밀 수입액 전년 대비 31.1% 증가

- 자동차(승용차, 트럭 등)의 경우 '23년 달러 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입 규제로 수입액이 급감했다가 '24.1~6월 전년 동기 대비 91.5% 급상승하며,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 상황을 표현

- '23년 달러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수입단가가 높은 승용차 수입 통제 시행, 이집트 정부는 '24년 하반기에도 외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 물량과 수입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24.5월 말 이후 신규 자동차의 ACID 발급이 중단되어 자동차 수입이 원활치 않은 상황

<2021~2024.6월 이집트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No.	구분	HS Code	2021	2022	2023	2024.1~6월		
	품목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2710	41.2	58.0	64.5	40.5	9.7	52.7
2	석유 가스와 그 밖의 가스	2711	23.1	32.2	33.3	23.6	5.7	26.0
3	밀과 메슬린	1001	35.0	42.7	37.7	23.2	5.6	30.4
4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8703	38.0	20.7	23.2	14.5	3.5	91.5
5	의약품	3004	30.8	33.0	32.4	13.3	3.2	△9.8
6	옥수수	1005	28.5	30.5	24.6	11.0	2.6	△15.3
7	대두	1201	28.0	27.9	16.6	9.0	2.2	6.4
8	고철과 스트랩	7204	19.0	17.0	14.5	8.8	2.1	46.9
9	철광과 그 정광	2601	16.2	15.7	16.3	8.7	2.1	8.1
10	항공기 기어	8805	0.1	4.9	10.5	5.6	1.3	△0.8
총 수출액			892	961.9	831.6	418.0	100.0	2.7

주: 2024년 1~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lobal Trade Atlas('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對한국 수입) '24.6월 기준 이집트의 對한국 수입은 승용차(HS Code 87)가 3.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6.8억 달러)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

- 승용차 다음으로는 전기기기*(HS Code 85) 9,994만 달러, 플라스틱(HS Code 39) 8,000만 달러, 보일러·기계류(HS Code 84) 6,286만 달러의 수입액 기록

* 삼성(TV, 태블릿) 및 LG(TV, 세탁기)의 현지 생산공장 운영에 따라 전기기기 수입액 매년 증가세

□ (수입 규제) '24.11월 기준 이집트는 한국에 대해 1건의 반덤핑 규제 시행 중

- 반덤핑 품목은 화학 제품류인 디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이집트의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

품목	품목명	HSCode	유형	조사개시	판정	비고
화학	디옥틸 프탈레이트 (Dioctyl Phthalate)	2917.32.00	반덤핑	'15.11.30	(최종) '16.11.28 (일몰) '21.11.29	• '15.11.30 : 조사개시 • '16.11.28 : 최종판정 * 부과기간 : '16.11.28~'21.11.28 * 관 세 율 : 6.2~13.9% (USD 72~145/MT) • '21.11.29 : 일몰재심 최종판정 * 부과기간 : '21.11.29~'26.11.28

자료: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카이로 무역관 정리

□ (수입 제한) 이집트 수출입관리법(Import and Export Law No.118/1975)에 따라 가금류 등 8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중고 제품은 13개 품목군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나 절차 및 구비서류가 매우 까다로움

〈이집트 수입 금지 품목 리스트〉

번호	품목 설명
1	• 이슬람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
2	• 닭고기 내장 및 다리
3	• 가금류 내장
4	• Oil Injection 펌프를 장착하지 않은 Two Stroke Motor-Bike
5	• 모든 종류의 석면
6	• 석면으로 제작된 브레이크 패드
7	• 유전자 조작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참치
8	• DDT 등 127개 종류의 화학제 * 농업용 살충제 및 살균제는 농업부 장관 허가 후 수입 가능 * 수입 금지 살충제 및 화학제 내역은 별도 리스트로 관리
9	• 아래 13개 품목을 제외한 중고 제품 수입 금지
	① 중고 생산 라인, 기계 및 부품
	② 차량 및 부품
	③ 기계, 장비, 스포츠용품
	④ 컨테이너
	⑤ 무기류(내무부 장관 허가 필요)
	⑥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이집트 공군이 구입하는 경우만 허용)
	⑦ 철로용 Metal 스크랩 및 폐기물
	⑧ 합성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환경부 허가 필요)
	⑨ Free Zone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재 및 제품(투자청 허가 필요)
	⑩ 폐지 및 폐잡지(정보부 허가 필요)
	⑪ 섬유를 사용한 밧줄 및 낚시(산업관리청 허가 필요)
	⑫ 예술품(문화부 허가 필요)
	⑬ 금속 또는 목재 기둥과 지지대 (이집트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만 수입 가능)
	⑭ 전기차

자료: 이집트 수출입청(GOEIC)

□ (비관세 장벽) 달러 유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수입 통제로 L/C 개설 지연 및 외국 기업의 對이집트 수출 미수금 사례 증가, 더불어 △소비재 제조공장 등록제, △까다로운 통관 절차 및 관행 등도 기업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외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에 필요한 외화 확보 지연

• (수입 통제) 4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던 외환보유고가 '22.2월 러-우 사태 여파로 급감, '24.2월 이후 해외 투자 유치 및 IMF 자금 지원 등으로 외환 사정이 다소 회복

- 이집트는 '22년 말부터 '24.3월까지 극심한 외환 부족 사태를 겪었으나 이후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FDI 유치 및 IMF, EU, WorldBank 등의 자금 지원으로 외환 상황 개선
- 이후에도 이집트 정부는 외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단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 및 수입 시기를 조정하고 있음

* '24.5월부터 자동차 수입번호(ACID) 발급 중단, '24.5월 이후 신차 완성차 수입 중단

- 또한 진출기업의 경우 은행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운드화의 추가 달러 환전에 제약을 두기도 함

• (제조공장 등록제) 28개 소비재 품목에 대해 해외 제조공장 등록제 시행

- 소비재의 수입 억제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16년부터 공장 등록제 시행 중
- 공장 등록 대상 품목은 선적 전 검사(COI) 후 이집트 통관 시 제출해야 함
- 선적 전 검사 비용은 한 품목당 약 1,000달러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 공장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 관세가 최대 60%까지 올라 경쟁국(튀르키예, 중국, EU 등) 대비 우리 기업 제품의 경쟁력 저하 지속
- 러-우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 급감, '22.3월 이집트 수출입청(GOEIC)은 공장 등록제 인증 만기가 임박한 기업 제품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 제조공장 등록 대상 제품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통관 애로)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관행으로 예상치 못한 통관 비용 발생

- 화학제품, 전자제품, 소비재(식품, 화장품) 등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자체 인증 기준이 미비해 수입 통관 시 관련 부처 산하 위원회의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수출 기업에게 보관료 증가 등의 금전적 피해 유발
- 수출신고와 무관하게 현지 세관 담당자별 자의적 HS Code 해석으로 인해 실제 품목보다 높은 관세를 지급하는 사례 다수
- 통관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도 아랍어로만 되어 있어 외국 기업이 통관 규정 파악에 어려움 많음

다. 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UNCTAD에 따르면 '23년 이집트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역대 최고치인 약 98억 달러 기록, 코로나 여파로 '20~'21년 외국인 투자액 감소 후 '22년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3년 외환위기로 투자 위축

* '24.3월 변동환율제 도입 전까지 달러당 공식 파운드화는 30.9EGP, 암시장 환율은 60~70EGP를 기록

〈2019~2023년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유치(FDI) 동향〉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투자금액(억 달러)	90.1	58.5	51.2	114.0	98.4

자료: UNCTAD('24.11월 기준 최신 자료)

-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증은 세금 감면, 외국인 투자 지분 100% 허용, 골든 라이선스 발급 제도 도입 등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

- 제조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19년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했으며, 특히 '21.12월 엘-시시 대통령 지시로 도입한 골든 라이선스 제도가 '22년 투자 유치액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골든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은 공장용 설비 수입 면세, 과세 순이익 할인, 토지 비율 50% 할인 등의 혜택과 토지 매입·임대 시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단일 승인 제도 적용

- 이외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인정 범위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제도*가 다수 도입됨

〈對이집트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제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투자자는 이집트 국민과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음
• 투자자는 각료 회의의 승인을 받아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자는 자의적 절차나 차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함
• 외국인이 투자한 프로젝트는 국유화될 수 없음
• 어떠한 행정 당국도 적법한 절차와 개정 시간 부여 없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없음
• 투자자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거주를 보장받음
• 투자자는 수익을 해외로 이전할 권리가 있음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10%의 외국인 직원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회사의 경우 최대 20%까지 가능
• 외국인 투자회사 직원의 경우 보상금을 해외로 이전할 권리가 있음

자료: 주미 이집트 대사관(Embassy of Egypt in Washington DC)

□ 이집트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

- '23년 기준 이집트의 해외 직접투자는 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0% 증가
- 러-우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이집트 정부 및 민간의 해외 투자 여력 약화, 정부 재정 투입 대부분이 천연가스, 제조업, 신행정수도 건설 등 자국 산업에 집중되어 당분간 이집트의 해외 직접투자는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19~2023년 이집트 해외 직접투자 동향〉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투자금액(억 달러)	4.0	3.3	3.7	3.4	3.9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경쟁국 투자 진출 동향

-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 순유입액(Net-Inflows)은 전년 대비 136.4% 증가한 237.1억 달러 기록
 - 국가별 순유입액은 UAE가 171.5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이외 영국 12.2억 달러, 미국 8.1억 달러, 중국 4.4억 달러, 스위스 3.8억 달러 등
 - UAE의 투자금액 중 상당액은 아부다비국부펀드(ADQ)가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 350억 달러 중 일부
 - * 동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투자 유치액으로, 이집트 외환위기 해소에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
 -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의 순유입액은 약 5,000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음

〈2021/22~2023/24 회계연도 주요국 對이집트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2021/22		2022/23		2023/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UAE	39.9	44.7	12.7	12.6	171.5	72.4
2	영국	2.3	2.6	3.9	4.0	12.2	5.2
3	미국	1.9	2.2	6.9	6.9	8.4	3.5
4	중국	4.3	4.9	7.4	7.5	4.4	1.9
5	스위스	4.9	5.5	6.7	6.7	3.8	1.6
6	사우디	3.7	4.2	21.3	21.3	3.6	1.5
7	쿠웨이트	4.6	5.3	4.1	4.1	3.2	1.4
8	싱가포르	3.1	3.5	4.0	4.0	3.1	1.3
9	카타르	4.0	4.5	4.6	4.6	3.0	1.3
10	벨기에	4.2	4.8	3.6	3.7	2.8	1.2
22	한국	7.1	0.1	30.5	0.3	0.5	0.2
전 세계		89.3	100.0	100.3	100.0	237.1	100.0

주: 이집트 회계연도는 당해 7월 시작해 이듬해이듬해 6월 종료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CBE)('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중, 유럽 기업들은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의 아인소크나(Ain Sokhna) 지역에 그린수소 프로젝트 투자 비중이 높았고, 튀르키예튀르키예는 석유 분야에 투자 집중

- '24.6월 이집트-EU Investment Forum을 통해 많은 기업이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 △BP, Infinity Power, Hassan Allam, UAE Masdar 등의 기업, 수에즈운하경제구역에 150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 △DEME Group 등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 지중해 연안 가르굽 항만에 240억 유로 규모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국부펀드(SFE) 및 DAI Infrastructure, 동부포트사이드에 100억 달러 규모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등

- 반면, 중국은 석유, 비료, 철강 등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중심으로 이집트 제조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 최근에는 전기차(EV) 현지 제조 파트너십 체결

* '24.9월 기준, 이집트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2,000개사 내외

- 한국의 경우 삼성 및 LG전자의 현지 가전공장 중심으로 '21년까지 투자 진출이 활발하였음. 최근 삼성은 '23.6월 현지 휴대폰 공장 추가 건설을 발표하였고 '24년 말 가동 예정

〈최근 외국 기업의 對이집트 투자계획 발표 사례〉

국가	기업명	투자액 (억 달러)	주요 내용	발표 시기
UAE	ADQ	350	라스 엘 헤크마 도시 개발 프로젝트	'24.1월
미국	IPR	2.5	새로운 유전 개발과 기존 유전의 생산을 유지하는 프로젝트	'24.1월
중국/한국	중국건축공정총공사, SK에코플랜트	22.2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생산 시설 (연간 생산량 30만 톤, 2029년 가동 추진) 건립 추진	'24.2월
중국	하이얼	5	가전제품 제조 시설 설립	'24.2월
UAE	Dragon Oil	5	걸프 오브 수에즈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 개발	'24.2월
튀르키예	Eroğlu	0.4	의류(청바지) 제조공장 설립	'24.2월
프랑스	Saint-Gobain Egypt	3	Sadat City에 유리공장 설립	'24.6월
벨기에	DEME HYPOR Energy	240	1,180m2 규모의 최대 200만 톤의 그린 연료 생산 프로젝트	'24.6월
노르웨이	스카텍	8.9	다미에타 지역에 총 480MW 용량의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	'24.6월
중국	Zhejiang Hengsheng	0.7	Quantara west 지역에 200,000m2 규모의 섬유 및 의류 원단 공장 설립	'24.7월
중국	Chemtics	0.3	40,000톤 이상의 차아염소산 칼슘 생산을 위해 60,000M2 화학공장 설립	'24.9월

자료: 현지 언론 종합(Ahram, Daily News Egypt)

□ 이집트 투자 진출 진입 장벽 (투자 제도, 비자, 노무, 자금 운용, 수입 규제 등)

- (시스템 미비) 정부 시스템 전산화 미비로 대부분의 업무를 서류로 진행, 이에 정부 행정업무 진행 시 시간 및 노력의 비효율성 가중
 - 여러 곳의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간혹 분실 사례도 발생
- (관료주의) 정부 실무자들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업무 진행 또는 애로사항 해결 요청 시 상급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빈번
- (불투명한 행정) 부가세 환급 지연, 자의적인 관세 부과, 비자 발급 애로 등
 - 부가세 환급의 경우 연간 1회 신청이 가능하나, 환급에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원자재 통관이 매우 까다롭고 사전 고지 없이 자의적 HS Code 해석으로 높은 관세 부과
 - 외국 기업의 Work Permit 발급·연장 관련 모호한 프로세스와 판단 기준
- (자의적 업무 방식) 제3국 수출로 현지 계좌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내수 판매로 생긴 파운드화의 달러 환전을 제한하는 사례 발생

라.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 주요 동향

- Meed Projects에 따르면, '22년 프로젝트 계약액이 38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3년 기준 1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6.1% 감소

- '18~'23년 사이 총 1,432억 달러의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프로젝트 수주 규모 중 '22년에 정점을 기록했음
- '21~'22년 이집트 프로젝트 계약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신재생수도 포함 신도시 건설*, 수력·원자력 포함 전력 발전* 프로젝트 계약이 주요 요인

* 신도시 건설 : Palm Hills New Cairo(12.7억 달러), New Al-Alamein City(12.5억 달러) 등

** 발전소 건설 : Hydropower Plant in Attaqa(20.1억 달러), El-Dabaa Nuclear Power Plant(12억 달러) 등

- 다만 러-우 사태가 발발했던 '22년을 거치며 경제 침체 발생으로 '23년부터 프로젝트 계약 규모 감소, 이는 139억 달러를 기록했던 '16년 이래 최소치임

- 이집트에서는 '24년 상반기 기준 약 6,2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으로, 이는 MENA 지역에서 큰 규모에 속함

-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가치는 총 약 1,090억 달러 규모이며, 디자인 및 FEED 단계의 프로젝트까지 합하면 약 2,280억 달러 이상
- 착수된 프로젝트 분야 중 합계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건설로 490억 달러를 기록, 교통 분야가 241억 달러를 기록
- 이집트 터널청(NAT) 및 이집트 석유부가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기관 1, 2위로 기록되며 Orascom Construction社가 금액 규모 면에서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수주한 것으로 집계됨

□ 프로젝트 기회 및 전망

- 이집트가 개도국이며,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해 인근 지역 정세 및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편이나, 인프라 시장 가능성은 평균 이상

- 이집트의 인프라 위험/보상지수(RRI*)는 전 세계 평균인 50보다도 낮은 42.8을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높은 시장성으로 인함

* Infra Risk/Reward Index(BMI, 2024.7)

- 한편, 해외기업 대상으로 한 이집트 프로젝트에는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유틸리티 분야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 연 매출 30억 달러 이상 선진화된 글로벌 기업 규모의 이집트 건설 회사와의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 지속

- 프로젝트 내 수주 경쟁업체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국내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간의 계약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합작 투자의 형성이 일반적일 것으로 전망

* Orascom Construction社 및 Arab Contractors社 등

- 최근 이집트 정부가 재정 통합 노력을 추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가 예상

- BMI에 따르면*,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국내 및 외국 프로젝트 계약자 비중 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교통, 에너지, 유틸리티 분야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KDP 분석 결과

□ 한국의 對이집트 프로젝트 수주 동향

- '76년 최초 진출 이후 '24.7월까지 총 80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수주

- '76년 두산건설의 이집트 엘-삼스 호텔 건설 공사 수주 이후 '00년대부터는 카이로 등 주요 도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주

- '22년 한국의 對이집트 프로젝트 수주액은 약 27.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는 한수원의 엘-다바 원전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인함

- '23년 한국의 對이집트 프로젝트 수주액은 945만 달러로 사우디, UAE, 카타르 등 GCC 중동국과 비교해볼 때 규모가 크지 않음

〈2020~2023년 이집트 프로젝트 계약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금액	76.8	112.1	2,776.9	9.4
건수	3	4	2	5

자료: 해외건설협회('24.11월 기준)

□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24.11월 기준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프로젝트명	발주처	금액	완공시기
건설	New Al Alamein City: 5 Residential Towers	Ministry of Housing, Utilities and Urban Communities, Egypt	1,254	2025
	Ark Mixed-Use Development in Cairo	The Ark Development	1,500	2026
	Aliva Residential Compound	Mountain View	4,545	2030
교통	Greater Cairo East Monorail: Phase 1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1,700	2024
	Greater Cairo West Monorail: Phase 2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1,300	2024
	High Speed Rail Network: Ain Sokhna-Al Alamein High-Speed Railway(Phase 1)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7,800	2025
	High Speed Rail Network: Luxor-Hurghada Railway Line (Phase 3)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2,000	2025
	Alexandria Metro: Phase 1: Lot 1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1,394	2026
	Cairo Metro Network: Line 4 : Phase 1 : Civil Package 1(CP 401)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1,990	2027
	High Speed Rail Network: Greater Cairo-Aswan Railway Line(Phase 2)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8,000	2028
석유 화학	Assuit Oil Refinery Upgrade: Hydrocracking Complex	Egypt's Assiut Oil Refining Company	2,000	2025
	Suez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lex	Ministry of Petroleum, Egypt	4,880	2026
신재생	3GW Wind Farm	New and Renewable Energy Authority/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3,600	2026
에너지	El Dabaa Nuclear Power Plant 4800 MW: Nuclear Island(Block 2)	Rosatom State Corporation Engineering Division	1,200	2026
오일&가스	Alexandria Refinery Expansion 2	Middle East Oil Refinery	1,920	2024

자료: Meed Project

□ 발주 예정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24.11월 기준 발주 예정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

(단위: 백만 달러)

분야	프로젝트명	발주처	금액	완공 시기
건설	Alex Middle Port	Ministry Of Transport, Egypt	488	2028
광산	Anchor Benitoite Plant: Propylene Unit	Anchorage Investments Ltd	400	2027
	Anchor Benitoite Plant: Butyl Acrylate Unit	Anchorage Investments Ltd	400	2027
교통	Alexandria Metro: Phase 1: Lot 2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750	2026
	Cairo-Alexandria Signaling Systems and Railway Lines	Egyptian National Railways	450	2027
	Cairo Metro Network: Line 1: Modernization of Helwan to El Marg Line	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NAT)	750	2028
	Cairo-Alexandria Trade Logistics Development: LOT 2	Egyptian National Railways	428	2028
석유 화학	Anchor Benitoite Petrochemical Plant	Anchorage Investments Ltd	2,500	2027
에너지	Euro Africa Power Interconnection: HVDC Cable System	EuroAfrica Interconnector Limited	710	2026
	El Dabaa Nuclear Power Plant: Civil works	Rosatom State Corporation Engineering Division	895	2027
	Soda Ash Plant	Ministry of Petroleum, Egypt	500	2027
	Egyptalum Factory Redevelopment	Egypt Metallurgical Industries Co	450	2027
	600MW Solar Power Plant at West Nile	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500	2028
인프라	47 Water Desalination Plants	New Urban Communities Authority/Egypt Holding Company for Water & Waste Water	2,800	2028
기타	Five CSP Stations	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	400	2025

자료: Meed Project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이집트 교역 동향

- '24.9월 기준 한-이집트 교역액은 1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

- '09~'21년 동안 한국은 매년 약 10억 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다만 '22년은 러-우 사태로 천연가스와 나프타 가격 및 수입량 급등으로 對이집트 교역 무역수지 적자 기록
- '23년 이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흑자로 전환

* '22년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의 약 50%를 천연가스가 차지, 러-우 사태로 인해 '2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1MM당 연평균 6.5달러로 전년 대비 65.8% 급증(자료: Macrotrends)

- 러-우 사태,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 절하가 이집트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 교역액 회복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러-우 사태로 시작된 외환 부족 상황이 '24.3월 IMF의 자금 유입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변동환율제 도입으로 이집트 파운드화가 평가절하되며 수입 여력 감소

〈2020~2024.9월 한-이집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교역	1,561	△15.8	2,328	49.1	3,159	35.7	1,965	△37.8	1,193	△26.2
수출	1,215	△22.8	1,682	38.4	1,468	△12.7	1,335	△9.1	1,009	0.4
수입	346	22.5	646	87.0	1,691	161.8	630	△62.7	184	△69.9
무역수지	869	△32.7	1,036	19.2	△223	△122.5	705	416.1	825	109.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4.11월 기준 최신 자료)

□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 동향

- (수출액) '24.9월 기준 이집트는 한국의 50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은 10억 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

* 수출국 순위 : '23년 41위에서 9단계 하락

- 이집트의 외화 부족 상황이 '24.3월 IMF의 자금 유입으로 다소 완화된 반면, 이집트 파운드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 여력 감소가 수출액 감소에 영향

* IMF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변동환율제 채택을 요구했고, 이집트 정부가 '24.3월 이를 수용

〈2020~2024.9월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8월
수출액	1,215	1,682	1,468	1,965	109
증감률	△22.8	38.4	△12.7	△37.8	0.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품목별 수출) '24.9월 기준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 1위 품목은 승용차이며, 다음으로 합성수지, 집적회로 반도체, 자동차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등임

- 승용차의 경우 '24.9월까지 2억 1,600만 달러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다만 이집트 정부의 수입 규제로 수입단가가 높은 완성차 수입보다 중고차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리비아 재수출 중고차 다수도 이집트를 경유하고 있음

- 집적회로반도체 수출은 삼성 및 LG전자의 현지 가전공장용이 대부분이며, 두 기업의 현지 생산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 '24년 10위권 내 순위를 올린 평판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이집트 정부에 납품하는 교육용 태블릿 PC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했으며 올해 말 휴대폰 신규 생산라인 가동 예정으로 지속 상승 전망

〈2023~2024.9월 한국의 對이집트 수출 10대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MTI 4단위)	MTI	2023		2024.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승용차	7411	310	57.0	216	2.4
2	합성수지	2140	181	△31.3	128	△8.3
3	집적회로반도체	8311	59	15.1	64	36.1
4	자동차부품	7420	47	△29.8	46	33.8
5	평판디스플레이	8361	32	△1.3	33	57.1
6	아연도강판	6134	32	△40.4	31	34.3
7	열연강판	6132	22	7.1	22	28.6
8	광학기기부품	7152	25	0.1	22	13.0
9	의약품	2262	19	△35.6	20	12.6
10	기타자동차	7419	8	195.2	19	276.7
합계			1,335	△9.1	1,009	0.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수입액) '24.9월 기준 이집트는 한국의 71번째 수입 대상국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액은 1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8% 감소
 - '21~'22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對이집트 수입액이 각각 87%, 161.8% 급증했으나, '23~'24년 간 천연가스 가격 하락 및 채산성 악화로 수입액 급감
 - 더불어 '23~'24년 이집트의 기록적인 폭염 발생, 자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여 수출 감소, 이에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 감소

〈2020~2024.9월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수입액	346	646	1,691	630	184
증감률	22.5	87.0	161.8	△62.7	△69.8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품목별 수입) 연도별 증감은 있으나 천연가스 및 나프타 등 광물성 연료가 매년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의 약 90%를 차지했으나 '24년은 79.3%로 하락
 -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對이집트 수입액 증감이 구조적으로 발생
 - 최근 이집트 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자국 생산량 부족하여, 對이집트 수입액 감소
 - 광물성 연료 이외 박류, 기타비금속, 편직·직물제 의류 등을 이집트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의 17.4%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음

〈2023~2024.9월 한국의 對이집트 수입 10대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MTI 4단위)	MTI	2023		2024.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1	나프타	1334	114	△85.1	85	△25.1
2	천연가스	1340	436	△46.3	53	△87.8
3	박류	0135	37	△24.2	20	△20.6
4	기타비금속광물	1290	19	△48.7	8	△53.5
5	직물제외류	4412	4	20.3	4	21.6
6	과실류	0116	3	108.6	3	26.8
7	편직제외류	4411	5	72.5	2	△64.8
8	사탕과자류	0161	1	△10.6	1	105.0
9	의약품	2262	1	△17.3	1	6.2
10	식물성한약재	0156	1	△11.3	1	△0.7
합계			630	△62.7	179	△69.8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4.11월 기준 최신 통계)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 동향

• '24.2분기 누적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액은 신고기준으로 9억 100만 달러

- LG(1990년), 삼성전자(2009년)의 현지 가전공장 투자 건을 제외하고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액 규모는 타 국가 대비 크지 않은 상황
- LG전자는 1990년 이집트 현지에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 이에 힘입어 1990년대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액은 약 1.5억 달러 기록
- 삼성전자는 '09년 TV 및 '21년 태블릿PC 공장을 건설했으며, '09~'21년 동안 삼성의 對이집트 투자액은 약 2.1억 달러 수준
- 이와 더불어 삼성은 '23.6월 이집트 베니 수에프주에 6,000㎡ 규모의 연간 500만 대 휴대폰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현재는 연간 150만 대 생산 중이며 2024년 말부터 추가 생산 예정

〈2024.2분기 기준 한국의 對이집트 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9	23	3	57	29
2020	13	3	34	20
2021	17	6	72	49
2022	17	4	56	32
2023	20	6	54	25
2024.2분기	5	2	29	11
누계	289	73	901	526

주: 1980~2024.2분기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4.11월 기준 최신 통계)

□ 한국의 對이집트 업종별 투자 동향

• '24.2분기 누적 기준 업종별 對이집트 투자액은 제조업이 3.64억 달러로 전체의 69.2%, 다음으로 광업이 1.4억 달러로 26.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및 광업의 투자 비중이 전체의 95.4%를 차지하며, 이외 분야로는 건설업, 전기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있음
- 국영기업 및 정부 산하 기업이 현지 프로젝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인근 중동국 대비 우리 기업의 이집트 건설 분야 투자액은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임
- 다만, '22.8월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따라 건설 분야 진출 확대 기대

□ 이집트 투자 진출 유의사항

-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지만 지분 100% 보유 승인 진행 시 이집트 당국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
- 대형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일부가 물, 전기, 통신 등 유틸리티 관련 산업과 철도 등 운송 산업을 독점하고 있음
-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은 동일한 투자법을 적용받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 민간-국영기업 경쟁 시 차별적 요소 존재 (예 : 신용장 발급 제한 등)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세이지만 외국 기업의 사업 추진 제약 존재
 - 외국인 근로자 할당량, 외국인 제공 가능 서비스 제한 등 애로사항 존재
 - 건설 부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자기자본이 50% 미만 및 준정부기관과 합작으로 투자회사 설립 필요
- 시나이 반도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JV 등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음
 - 시나이 반도의 경우 외국 투자자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포함) 소유 금지
 - 단, 부동산 용역권은 취득 가능하며 기간은 별도 승인 시 최대 50년 부여

〈2021~2024.2분기 한국의 對이집트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업종 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21	제조업	11	3	72	48
	운수 및 창고업	1	1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2	1	0	0
	소계	17	6	72	49
2022	제조업	14	3	56	32
	전기, 가스, 증기 공급업	1	0	0	0
	건설업	1	0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0	0
	소계	18	4	57	32
2023	제조업	15	3	28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54	25
	건설업	1	0	0	0
	도매 및 소매업	1	1	0	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0	0
	소계	20	6	54	25
2024	제조업	4	1	29	1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0	0
	소계	5	2	29	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4.11월 기준 최신 통계)

〈이집트 진출 한국 기업 리스트〉

번호	회사명	진출년도	업종	번호	회사명	진출년도	업종
1	삼스코	1976	섬유	22	LX판토스	2014	물류
2	금호타이어	1986	타이어	23	일해	2014	사출성형
3	LG전자 이집트	1990	가전	24	희성전자	2014	전자부품
4	포스코인터내셔널	1977	종합상사	25	성지산업	2014	섬유
5	Safety Sky	1997	물류	26	(주)성안	2015	섬유
6	한산글로벌	1999	무역	27	신신사	2014	전자부품
7	Texchem	2003	석유화학	28	을화섬유	2015	섬유
8	그랜드 팔콘	2003	도소매업	29	팩트라	2015	물류
9	C&C Corporation	2003	도소매업	30	삼성물산	2016	종합상사
10	GS건설	2005	건설업	31	KMP	2016	전자부품
11	한산글로벌	2005	도소매업	32	JST	2017	환경플랜트
12	JFC	2006	컨설팅	33	미디어스	2019	서비스업
13	현대모비스	2009	자동차부품	34	제일기획	2020	광고
14	두산에너지빌리티	2010	건설업	35	LS일렉트릭	2020	전력기자재
15	현대종합상사	2010	종합상사	36	LS전선	2020	전력기자재
16	한국타이어	2010	타이어	37	한국수력 원자력	2020	원자력
17	SH Chemical	2010	석유화학	38	프리미닉스	2019	전자제품
18	다나 펄트롤리엄	2010	자원개발	39	한국항공 우주산업	2022	방산
19	현대로템	2012	전동차	40	한화에어로스 페이스	2023	방산
20	삼성전자	2012	TV	41	도루코	2023	생활소비재
21	삼성SDS	2013	물류	42	넥센타이어	2023	타이어

자료: 2024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 조사

다. 협력 유망 분야

□ (FTA) 한-이집트 FTA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

- '16년 한-이집트 정상회담 시 통상, 무역, 투자 진흥 분야 실질 협력 증진 논의
- 이집트는 EU, 튀르키예, 미국, 이스라엘, 아프리카연합, 남미공동시장 등 약 70여 국가와 FTA 체결을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부문 협력 확대 중
- 이집트의 수출 및 수입 상위 10대 국가 중 대부분이 FTA를 체결한 상황
 - 중국은 이집트와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집트가 체결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중동 및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초기지로 이집트를 활용
- 유럽, 튀르키예 등 FTA 체결국 상품의 현지 가격경쟁력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이집트는 외환위기 예방 차원에서 완제품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추세
 - * 이집트의 수입관세 : (승용차, 1600cc 미만/1600cc 이상) 40%/100%, (식품) 30%, (화장품) 40%
- 이집트 진출 및 수출 국내 기업에 따르면, 세관의 자의적 HS Code 판정 등의 통관 애로가 이집트 진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린수소) 그린수소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이집트와 수소 기술 선도국 한국의 시너지 창출

- 이집트는 '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를 세우고 그린수소의 국제적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 '40년까지 920만 톤을 생산하고 국가 GDP를 100억~180억 달러 확대 예정
- 이집트는 넓은 사막과 수에즈만 및 나일강을 끼고 있어 그린수소에 필요한 태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해운업계의 수소에 대한 수요 충족에도 유리한 입지 보유
 - * 지리적으로 흐린 날이 적은 Sun Belt 지역에 위치,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
 - * 수에즈만, 나일강 등 평균 풍속이 8m/s에 이르는 등 풍력 발전 조건이 뛰어난 환경
- '24.2월 '그린수소 및 파생상품 생산 프로젝트 인센티브' 법률을 제정하여 그린수소 진출 기반 마련, 우리 기업도 그린수소 협력국으로 이집트 고려 필요
 -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플랜트 및 전해조 제조 시설 유치에 관심이 높음
 - 현지 생산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유럽 등지에 판매에도 용이
- 이집트는 그린수소 분야에서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국가, 인도, 중국과 협력하고 있음
 - '24.2월 SK에코플랜트가 이집트-중국건축공정총공사의 그린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
 - * △BP, Infinity Power, Hassan Allam, UAE Masdar 등의 기업, 수에즈운하경제구역에 150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 △DEME Group 등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 지중해 연안 가르굽 항만에 240억 유로 규모 그린수소,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국부펀드(SFE) 및 DAI Infrastructure는 포트사이드에 100억 달러 규모 그린암모니아 프로젝트 추진

□ (ICT 분야) 'Digital Egypt' 전략 연계, 이집트 디지털 전환 분야에 정부 간 협력

• 이집트 통신정보부 장관이 '24.6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에 방한, 우리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 협력 센터 구축에 합의

- 우리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가가 이집트에 직접 파견(2025년 파견 추진 중)되는 사업으로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정부 간 협력 사업 (디지털 협력 센터(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Center, DGCC) 개요)

- (개요) 협력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협력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 운영,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 연구, 시범사업, 공무원 역량 개발 등 지원
- (목적) 협력 국가 디지털정부 발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관련 협력사업 발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지원
- (예산) 우리나라는 협력사업비 지원(연 약 33만 달러, 3년 약 100만 달러), 협력국은 현물(사무공간 집기 등) 제공
- (운영기간) 3년을 기본으로 하되 협력국 요청에 따라 연장 가능

• 이집트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 정부의 이집트 개발협력 중점 분야 중 하나로 KOICA를 통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원 확대 추세

- 코이카는 △전자 조달 시스템(e-procurement) 구축, △지적재산권 통합 관리 서비스(comprehensiv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전산화, △수출입청 위험 기반 통관 시스템(risk-based customs inspection) 구축 등 이집트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 중

□ (제조업) 전자제품, 휴대폰, 제3국 수출 기지로 이집트 활용

• (전자제품) 이집트 정부의 Egypt Makes Electronics(EME) 인센티브 활용한 현지 진출을 통해 이집트 내수는 물론 중동·아프리카 및 유럽의 수출 기지로 활용

- '24년 이집트-EU 간 PEM 협약(Pan-Europe-Mediterranean Convention)을 체결, 유럽 수출을 위한 이집트 생산품의 현지 제조 비율이 60%에서 50%로 조정되어 이집트산 제품의 對유럽 수출 용이

* 그간 EU와 FTA에도 불구하고, TV의 현지화 비율 60%를 미충족하여 對유럽 수출이 막혀 있었음

- LG전자는 백색가전(TV, 세탁기)을 생산, 내수 판매 및 북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 수출 중이며 유럽 수출은 없는 상황, 향후 유럽 수출 기대

* '24.8월, 현지 라쉬와 계약 체결, 에어컨 연간 약 30만 대 생산 예정으로 시장 확대 중

- 삼성전자가 2009년 가전공장을 설립, TV, 모니터를 생산, 내수 판매와 주로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은 소형 모니터만 수출 중, 향후 TV의 對유럽 수출 기대

* '24년 현지 가전 기업 Fresh사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냉장고, 세탁기 생산 시작

- 이외 BHC International(보쉬 계열사), 튀르키예의 BEKO, 프랑스 ABC사, 중국의 Haier 등 글로벌 가전사들의 진출 활발하여 전자제품 산업 활성화되고 있음

- 가전제품 이외 태양광 시스템, 스마트 미터기, LED 조명도 현지 생산 유망

〈Egypt Makes Electronics 주요 내용〉

산업 분야	주요 제품	투자 인센티브
제품 및 시스템 디자인, 개발	휴대폰, 태블릿PC 등	지정 산단 입주공간 지원 (최대 50%)
집적회로 디자인	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프로젝트 (최대 80%)
위탁 생산	태양광 시스템	기업 맞춤 교육 (최대 100%)
반도체	스마트 미터기	전자 디자인 툴/키트 개발 (최대 90%)
유통, 보수 및 재활용	IoT 기기 및 스마트 솔루션	지정 산단 내 장비 등 면세 (최대 100%)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자료

• (휴대폰)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의 휴대폰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에 기반을 두고 추진, 휴대폰 부품의 현지 제조 및 수출 고려

- 삼성이 이집트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최근 OPPO, Vivo, Xiaomi, NOKIA, ACE 등도 현지에서 휴대폰을 생산
- 삼성은 현지 생산 휴대폰을 중동·아프리카, 유럽, CIS 등 40여 국가에 수출 중이며, 총리는 현지 생산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모범 사례로 삼성을 언급

* 삼성은 연 150만 대의 휴대폰 생산, '24년 말 추가 생산라인 완공 시 500만 대로 확대

- '23.2월 이집트는 '23년 '대통령령 제67호'를 승인,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수입 부품(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관세를 기존 5~30%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현지 제조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단, 인센티브는 현지 생산 비율 50% 이상 충족 시 지급

□ (방산) K-9 패키지, 고등훈련기 중심 한-이집트 방산 협력 대폭 확대

• 러-우 사태로 '23년 이집트 국방예산은 3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0%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 시장점유율 7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

• '17~'21년 이집트는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5.7%로 세계 3위 수준이며, '12~'16년 대비 무기 수입액은 73% 이상 증가

* 세계 무기 수입 1~2위는 인도 및 사우디

- 같은 기간 이집트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은 러시아가 41%로 1위를 차지, 이외 프랑스 21%, 이탈리아 11%, 미국 6.5% 기록

• '17년 이후 한국 방산물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22.1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이집트 국방부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및 방산 분야 협력 MOU 체결

• 한화디펜스, 이집트 정부와 '22.2월에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역대 최대 2조 원 규모의 K-9 패키지 수출계약 체결

- K-9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자주포로 155mm 구경 및 8m 길이 포신 장착, 최대 사거리 40km
- 한화는 K-9 패키지 수출계약 일환으로 이집트에 자주포 기술 노하우 이전 예정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집트 공군에 고등훈련기(FA-50) 100대 공급 협상 진행 중, 현재 이집트 측에서 36대 우선 주문 의사 표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집트 공급을 추진하는 고등훈련기(FA-50)는 이집트 공군 주력 전투기인 FA-16과 호환성이 높은 이점을 바탕으로 수주 추진 중
 - '22.8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 성공적인 참가 이후 이집트 내 한국 공군 관련 기술 인지도 대폭 증가
- 주요 방산물자의 노후화로 전차 및 장갑차(육군), 초계함 및 호위함(해군), 훈련용 전투기(공군) 등의 방산물자 수요 꾸준히 증가 예상

- ※ 엘-시시 대통령 연임 성공,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경제개발 정책 추진
- ※ 통화 가치 하락, 수입 물가 상승,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리스크 상존
- ※ IMF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노력
- ※ 가전, 모바일, 자동차 중심으로 MENA 지역 제조업 허브로 발돋움 노력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수소 분야 프로젝트 활성화 확대
- ※ 디지털정부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인프라 구축 노력
- ※ 그린수소,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산업 가속화
- ※ 역내 평화 중재자 역할 수행을 위한 국방 분야 투자 및 개발 지속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 엘-시시 대통령의 연임 성공, '30년까지 안정적 집권 가능 •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촉진 • 중동 및 아프리카 그린산업 허브로 발돋움 노력 박차 • IMF 요구에 따라 민영화 확대, 통화 긴축, 긴축 재정 등 추진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 마련
Economic 경제	• '22.2월 러-우 사태 이후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경제위기 가중 • IMF는 '24년 GDP 성장률 3.0%, '25년 4.4% 성장 전망 • 고물가 지속으로 기준금리 '22.3월 9.2%에서 '24.8월 27.2%로 급등 • 인플레이션은 다소 안정세이나 '24.9월 25.7%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4.3월 변동환율제 도입, 달러당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62% 급락 • '22~'23년 외환보유고 약 350억 달러, '24.11월 기준 467.4억 달러
Social 사회문화	• 매년 약 180만 명 인구 증가, '24년 기준 1억 780만의 인구 대국 • 인구의 51%가 30세 이하로 젊은 층 노동력 풍부 • 경제성장 대비 급격한 인구 증가가 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 • '18년 이후 빈곤층 비율 감소세였으나 '24년 29.3%로 다소 상승
Technological 기술	•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아프리카 내 제조업 강국 도약 노력 • 풍부한 재생에너지원, 인센티브 지원 등 그린수소 성장 박차 • 고용효과가 큰 섬유 및 의류 산업의 현대화 추진 및 수출 확대 •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ICT 인프라 구축 추진 • 원자력 발전소, 신행정 수도 등 국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가전,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부문 글로벌 기술 경쟁력 보유 및 관련 국내 기업 진출 증가
- 우호적 관계 기반 정부 간 협력 지속 확대
-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정부의 新 중동 붐 정책 지속
- 원전,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수주 경험

약 점(Weakness)

- 지리적 차이, 문화적 이질감 등에 따른 현지 정보 이해 부족으로 초기 진출 진입 장벽 존재
- 한-이집트 FTA 부재로 경쟁국 대비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지속
- 노동집약형 산업 기술 인력 미보유
- 이집트 진출 정책금융 지원제도 부족

기 회(Opportunity)

-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
- 6,700만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보유
- EU, AfCFTA(아프리카) 등 광범위한 FTA 보유
-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이집트 의지 확대
- 재생에너지, 친환경 등 그린산업 가속화
- 국가 전반에 IC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전환
- 원전, 신재생수도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위 험(Threat)

- 높은 인플레이션, 현지화 가치 하락 등으로 구매력 약화
-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로 외환 리스크 존재
- EU, 중국 등 경쟁국 투자 진출 증가
- 달러 부족에 따른 간접적 수입 규제 지속
- 주요 프로젝트 정보 공개 미흡
- 통관, 세금 부과 등 불투명한 수입 정책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정부 간 협력을 활용한 원전 분야 진출 확대 • 방산 분야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 노력	우호적 관계 기반 대형 프로젝트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현지 제조업 정책 및 이집트 기 체결 FTA 활용을 위한 현지 제조업 현지 진출 확대	상생협력 기반 제조업 진출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그린산업 등 국가 개발 아젠다 중심 진출 기회 모색 •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노력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신사업 기회 창출
WT 전략 (위험 대응)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링 구축 통한 제조업 진출 • 한-이집트 FTA 체결 통한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	통상협력 확대로 비즈니스 리스크 경감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프로젝트	① (원전, 방산) 정부 간 우호 관계 기반 원전·방산 기회 협력 모색 - 총 4,800MW 규모 엘-다바 원전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25년 이후 경제 호전 시 인프라·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 재개 기대 - 고부가가치 방산 물자 수출을 통한 이집트 안보 강화 지원 -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장기적 동반자 관점의 협력체계 구축
산업 전환	② (제조업) 현지 진출을 통한 상생협력 경제발전 모델 구축 - 가전,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투자 진출 확대 - 제품 수출 →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 제3국 수출'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전환	③ (친환경) 국가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신사업 분야 기회 창출 - 정책금융 확대로 그린수소,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사업 기회 모색 - COP27 개최를 계기로 역내 그린산업 허브로 발돋움 노력 확대
디지털 전환	④ (ICT) 디지털 전환 컨설팅, 인력 교육을 통한 협력 기회 발굴 -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등 ICT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 모색 -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컨설팅 및 한국의 노하우 전수

· 제조업, 원전, 방산 등 이집트 정책 아젠다에 부합하는 진출전략 모색

·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상생협력 동반자 관점의 현지 시장 공략

· 재생에너지, ICT 등 프로젝트 분야 신사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화

3-1. 정부 간 우호 관계 기반 원전,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 기회 선점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한-이집트 정부 간 우호적 협력관계 활용 가능
- ※ 한수원의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이집트 원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 ※ 이집트에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여타 중아시아, 유럽 등 제3국 진출 기반 마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원전) 한국수력원자력(KHNP), '22.8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Rosatom) 자회사인 ASE로부터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2차측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수주
 - 이에 따라 '29년까지 원전 터빈 건물, 수처리, 냉방시설 등 총 82개의 구조물 건설 및 발전기 설치
 - 향후 추가 발주가 예상되는 원전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관련 기자재 기업의 이집트 진출 기회 모색 가능
- (신행정수도) 엘-시시 대통령의 역점 사업으로 650만 명 거주 가능 도시 신설, 34개 정부 청사 및 32개 부처 등 정부기관 80% 신행정수도로 이전 계획
 - 교육기관 2,000개, 의료시설 600개, 호텔 400개, 모스크 1,200개, 공원, 철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 엘-시시 대통령 주도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러-우 사태 이후 달러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 다소 둔화된 상황
 - 2024년 대선에서 엘-시시 현 대통령 연임 성공 및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이집트 경제위기 호전 시 재개 가능성 높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주요 시공사 또는 현지 기업과 협력 시 기자재 납품 가능성 증대
 - 프로젝트 및 기자재 납품 규모가 클수록 당국의 현지화 요구가 늘어나므로 이집트 파트너와의 JV 설립 등 투자를 동반한 진출전략 검토 필요
 - UAE 바라카 원전 참여 기업은 중동 원전 시장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처 벤더 등록 선행 등 기자재 납품 입찰 우위 포지션 선점 가능
 -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은 이집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KOTRA, 대사관 등 정부 사업을 통한 발주처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젝트 동향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유망품목) 원전 터빈, 배관시설, 가압기, 연료 주기 시설 등 원전 기자재 및 밸브, 파이프, 전력 기자재, 케이블, 철강 구조물 등 건설 인프라 기자재

우리 기업 프로젝트 수주 사례 (한수원 엘-다바 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 (엘-다바 개요) 이집트 원자력청(NPPA), '17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Rosatom) 자회사인 ASE와 300억 달러 규모, 1,200MW 원자로 4기(총 4,800MW)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 (프로젝트 재원) 총액의 85%는 22년 장기 상환 방식으로 러시아가 차관 제공, 15%는 이집트 정부 조달
- (사업 일정) '22.7월 착공, '30.2월 준공 목표
- (한수원 수주 내용) '22.8월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2차측(Turbine Island) 건설 공사 계약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시공사로 참여하며 '29년까지 터빈 건물, 수처리, 냉방시설 등 총 82개 구조물 건설 및 터빈과 발전기 설치 예정

3-2. 한국의 자주국방 기술력을 활용한 방산협력 기회 모색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역내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 지역 정세 불안으로 자주국방에 대한 정부 의지 강력
- ※ '24년 국방예산은 약 32.6억 달러로 경제위기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 세계 수입국 순위 7위 유지
- ※ K-9 패키지 수출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공급 추진 등 한-이집트 방산 협력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3년 국방예산은 외화 부족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31.6억 달러 배정
 - 이집트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예산 변동 폭이 크다는 특성이 있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국방비 원조를 꾸준히 받고 있음
 - 수단 및 에티오피아와의 르네상스 댐 분쟁, 리비아 내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역내 평화 중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방 기술 국산화 의지 강력
- '17~'21년 5년 동안의 총액 기준 이집트의 무기 수입액은 전 세계 3위 차지, '23년 국방예산은 세계 7위로 여전히 높은 순위
 - '13년 군사 쿠데타 당시 미국과의 갈등 이후 방산물자 수입처 다변화 추진,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 중
- 전차, 전투기 등 주요 방산물자 대부분이 1980년대 전후 도입, 이에 따른 노후화로 해당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이집트 간 우호적 관계, 최근 우리나라의 대규모 방산 수출 성공 분위기를 활용해 기술 이전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수출 기회 발굴**
 - 이집트는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계약 체결 시 현지 생산 기술 및 노하우 전수 등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
 -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후 기술 교육 등 관리체계 수립 필요
 - 제한적인 방산 정보, 폐쇄적인 시장 특성을 고려해 이집트 방산 엑스포(EDEX) 등 전시회 참여로 현지 유력 에이전트 발굴 가능
 - 방탄조끼 및 헬멧 등 비방산물자, 감시 카메라 등 보안 제품 시장도 유망
- **(유망품목) 자주포, 전투기 제조, 운영 및 수리 관련 기자재, 방탄조끼, 최루탄 등 시위 진압용 보안물자, 감시 카메라 등 국경 보안 제품**

우리 기업 진출·협력 사례 (K-9 패키지 수출 계약, 고등훈련기(FA-50) 공급 협력)

- (K-9 패키지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정부와 '22.2월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2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K-9 패키지 수출계약 체결. K-9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산 자주포이며, 한화는 자주포 수출 이후 이집트와 기술 이전 협력 예정
- (고등훈련기 공급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집트 국방부와 자사 고등훈련기(FA-50) 100대 공급 협상 진행 중이며, 현재 이집트 측에서 36대 우선 주문 의사 표명.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고등훈련기 FA-50은 이집트 공군 주력 전투기인 FA-16과 호환성이 높으며, '22.1월 K-패키지 수출, '22.8월 한국 공군의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 참가 이후 이집트 내 한국 국방기술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3-3. 제조업 현지 진출을 통한 상생협력 경제발전 모델 구축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정부는 Egypt Makes Electronics를 통한 전자제품, 핸드폰,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등을 통한 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투자 진출 기회 및 수출 확대 기대
- ※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무역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 높음
- ※ EU, 아프리카대륙연합, 미국, 튀르키예 등과의 광범위한 FTA로 MENA 지역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 정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중심으로 가전, 휴대폰,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
- (전자제품) '15년부터 이집트 전자산업 육성 정책(EME*) 일환으로 가전, 핸드폰 등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현지 생산 독려, 최근 이집트의 PEM 협약(Pan Europe Mediterranean Convention) 체결로 對유럽 수출 원산지 규정 완화되어 삼성, LG가 현지 생산한 TV의 對유럽 수출 기대
 - * EME는 최소 현지 부품 사용 비율 충족, 노동력 훈련을 통한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 충족 시 수출 관련 세금 및 관세 혜택, 토지 장기 임대, 저리 대출 등 지원
- TV, 세탁기 등 인근국 수출 기대효과가 높은 전자제품 제조업 허브로 활용, 아프리카, 유럽 FTA 체결국과 GCC 중동 국가 시장 공략 가능
- 글로벌 경쟁사들이 대거 진출, 하이얼, 베코(튀르키예), 월풀(미국), 보쉬(독일) 등이 현지 제조 중이거나 공장 설립 중으로 대규모 시장 조성
 - * 이집트 상위 판매 가전은 오븐,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순(Statista, '24.8월)
- (휴대폰) 이집트 휴대폰 제조 산업 육성 추진 계획 발표, 관련 부품 관세 혜택 지원 등 현지 제조 활성화 및 제3국 수출을 독려
 - 이집트 정부는 휴대폰 현지 생산 독려를 위해 '23.2월 '대통령령 제67호'를 승인,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30%에서 2%로 인하, 휴대폰 부품 수출 고려
 - 그동안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 Xiaomi, Oppo, Nokia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진출 활발
 - * 삼성전자는 휴대폰 생산라인 확대 중, '24년 완공 예정
- (자동차) 이집트 정부는 '22.6월 자동차산업 발전전략*(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 현지 생산 확대, 친환경 차량 보급,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현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 현지화를 통한 자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수입 부품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하이테크 자동차 부품 수입은 불가피

- '23년 이집트의 전체 등록 차량은 약 1천만 대 내외, 연간 승용차 판매(중고차 제외)는 7만 대 내외로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나, 그럼에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투자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시장

* 현지 자동차 제조는 단순 조립 수준, 향후 연간 50만 대 생산하여 10만 대 수출 목표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닌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현지 정부가 원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이집트를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인근국 대비 저렴한 임금, 6,700만에 달하는 생산가능인구 보유로 노동집약형 제조업 진출 환경 우수
- 글로벌 가전, 휴대폰, 자동차 기업의 진출이 활발, 부품 제조로도 접근 가능
 - * 이집트 현지 제조 시 내수시장뿐 아니라 FTA를 활용한 제3국 수출 고려 필수
- EU, 아프리카, 미국 등과의 FTA 체결 관세 혜택으로 부품 조달이 원활하며, 현지 생산 제품 제3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유망품목) 수출 혹은 현지 제조

- (가전) 인버터 컴프레서, 냉장고용 폴리우레탄, 스마트 온도측정기 등 부품
- (휴대폰) 디스플레이 패널, 카메라, 이차전지 등 관세 혜택 있는 부품
-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필터, 기어박스,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타이어 등의 부품

우리 기업 진출 사례 (LG전자 및 삼성전자, 이집트 현지 생산공장 설립)

- (LG전자) 1990년 이집트 이스마일리아에 TV 공장 건설 후 '14년 10th of Ramadan시로 공장 이전, '17년에는 세탁기 공장 완공 및 현지 생산 시작. 연간 TV 130만 대, 세탁기 10만 대 생산 중이며, '23.4월에는 냉장고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2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삼성전자) 이집트 베니 수에프 산업단지에 '09년 TV 공장 건설 이후 '21년 태블릿PC 공장을 건설하며 현지 생산 시작. 연간 TV 200만 대 및 태블릿PC 70만 대 생산 중이며, '23.6월에는 베니 수에프주에 6,000㎡ 규모의 연간 500만 대 휴대폰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3-4.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본격화에 따른 협력 기회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이집트 중장기 경제개발계획(SDS 2030)과 연계한 기후변화 전략(NCCS 2050) 추진
- ※ '22.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 지역 내 그린산업 중심국으로 발돋움 노력
- ※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프로젝트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가 그린수소 위원회 설립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는 '22.12월, COP27에서 '40년까지 전 세계 그린수소의 8% 생산 목표 발표**
 - '30년까지 연간 32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하고 '40년까지 약 3배인 920만 톤 생산, 이를 통해 국가 GDP를 100억~18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 * 이집트는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그린수소 발전에 유리한 입지
 - 이집트 정부는 '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2%로 증대할 계획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송전망 및 ESS 시설 구축 필요
- **'24.2월 그린수소 및 파생상품 프로젝트 인센티브 법률 제정. 유럽, 중국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공적. 내년부터 프로젝트 본격화 예상**
 - '24.2월 글로벌 기업들과 7건의 MOU를 체결, 이 프로젝트들은 10년간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410억 달러 규모 투자
 - * 한국의 SK에코플랜트가 중국 기업과 공동 투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암모니아 생산 계약 체결
 - '24.6월 '이집트-EU 투자 콘퍼런스'를 통해 그린수소 분야에 대규모 투자 유치
 - *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에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총 330억 달러 규모의 4건의 계약 체결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그린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탄소 공동협력 노력**
 -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수소 개발, 관광지 태양광 발전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
 - 재생에너지 개발 초기 단계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초기 단계부터 제품 공급 및 프로젝트 진행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필요
 - 특히 '24년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적. 차년도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해조 등 관련 장비 시장에 관심 필요
 - * 그린수소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계약 후 5년 내 운영 시작 조건 명시

- 현지 전문가들은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권하며, 위험 분산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 필요성 강조

* 노르웨이 Scatec사, Fertigllobe와 이집트국부펀드, Orascom건설과 협업 진출, 성공적 추진 중

* 정부 및 민간기업, 국제기구와 협력,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위험 분산과 자금 조달, 전문 지식 공유 필요

• **(유망품목) 그린수소 추출을 위한 전해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정지형 변환기,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 발전 관련 기자재**

- 특히 전해조는 현지 제조사 전무,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24년 1분기 수입액이 3억 642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9,650% 성장

* 이집트는 PEM(양성자교환막), SOEC(고체산화물) 전해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

* 이집트의 그린수소 전문가들은 한국이 첨단 전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스마트 그리드 및 ESS에 대한 수요 증가

* 이집트 정부의 '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42%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로 전력망 현대화와 ESS 구축이 필수

우리 기업 진출 사례(SK에코플랜트, 이집트 그린수소 분야 진출)

- ◆ SK에코플랜트는 태양광·풍력으로 연 25만 톤의 그린암모니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진출
- (개요) '24.1월 중국국영건설사(CSCEC), 이집트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MOU* 체결
 - * CSCEC와 이집트 신재생에너지청(NREA)·국영송전회사(EETC)·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국부펀드(TSFE) 등 주요 정부기관과 체결
- (내용) 태양광 500MW, 육상 풍력 278MW 등 총 778M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블루에너지의 SOEC(고체 산화물 전해조) 및 250MW 규모의 전해조를 이용해 그린수소 추출 → 그린수소는 저장·운송이 용이한 그린암모니아로 변환, 연간 25만 톤의 암모니아 생산 및 수출 추진
- (예산) 총 사업비는 약 2조 6,000억 원
- (일정) '29년 말 완공 예상, 이집트 정부로부터 부지를 지정받아 타당성 조사 후 구체적 규모 및 일정 확정 예정

3-5. ICT 분야 신사업 기회 창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이집트는 'ICT 2030' 및 'Digital Egypt'를 통한 국가 전반에 I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화 전환 추진 중
- ※ 'Digital Egypt'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투명한 정부 추구, 업그레이드 지속
- ※ ICT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로, 디지털정부 시스템,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 등 협력 기회 다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4.7월 통신정보부 장관, ICT 산업의 GDP 기여도를 '23/'24년 5.8%에서 '30년까지 9%로 상향 목표, 이를 위해 해외 투자 유치, ICT 역량 강화, 아웃소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이집트 플랫폼 업그레이드 필요
- (디지털 플랫폼(E-Government) 개발 지속) 정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지속 확장, 해외 거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우체국 네트워크 현대화 등 추진 수요
-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개발은 Digital Egypt 전략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도시화 문제 해결과 디지털 경제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중요 요소로 인식
 - 스마트시티는 실행정수도(NAC)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 외국 기업의 스마트 기술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수요가 높은 분야임
 - * 실행정수도(NAC) 같은 신도시에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 IoT, AI,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교통, 에너지 관리, 보안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 * '23.7월, UNDP와 통신정보기술부 산하 ITIDA는 5년간의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협약 체결
- (5G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 이집트는 5G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여 고속 통신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자동화 등의 기술적 수요를 충족할 계획. 5G 네트워크 확장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전망
- (사이버 보안 솔루션)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예정. 특히, 전자정부 플랫폼과 공공 서비스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
- (데이터 센터) 이집트 정부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저장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센터 확장 필요성에 공감
 - * 더 많은 공공 데이터를 중앙화하고, 각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서비스 속도와 정확성 향상
- (AI 및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 의료,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행정 개선 및 의사결정 시스템 혁신이 수요가 높은 분야로 평가됨
- (전자 결제 및 핀테크) Fawry와 같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집트는 핀테크 기업들이 공공 서비스와 더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금융을 확대할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한국 기술 홍보 및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

- ICT 프로젝트는 주요 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와의 신뢰 관계 구축 중요
 - * 디지털 인프라 확장으로 사이버 위협 증가로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특정 프로젝트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신행정 수도 데이터 센터 건립 : 입찰 참여 예정자들과의 사전 협의 가능
- KOICA 및 KSP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 가능
-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분야는 현지 법규 및 규제에 따라 단계적 진출 필요

• (유망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AI 및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데이터 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전자 결제 및 핀테크 등

- (E-Government)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E-Tax 등 전자 ID 등에 관심
- (사이버보안)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 따른 사이버 보안 이슈 확대 예상
- (데이터 센터) 신행정수도 그린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 * 입찰 예정, 잠정 입찰 예정 기업들과 사전 업무 타진
- (스마트시티) 스마트 인프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 IoT, AI 기반 서비스 등
-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ICT 인프라 구축에 따라 향후 단계적 확대 예상

(추진 예정 ICT 프로젝트) 신행정수도 그린 데이터 센터	
발주처명	• 통신정보기술부(MCIT)
프로젝트 일정 (잠정)	• ('26.1월) 입찰 공고(ITB, RFP) → ('26.3월) 서류 제출 → ('26.6월) 수주 → ('27.12월) 계약 완료 및 시운전 * 입찰 초대장(ITB)과 제안 요청서(RFP)는 '26.1월 예정
규모	• 6,000만 달러
프로젝트 상세정보	• 프로젝트 범위 : 200MW IT 용량의 데이터 센터 건설, △회의실 및 사무 공간 건설, △안전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백업 전원 공급 장치 설치, △ 데이터 케이블의 설치 등 추진 • 잠정 입찰사: Orascom 건설, Hassan Allam 건설, Zhajing Thermal Power

자료 : Meed Project

우리 기업 진출 사례 (삼성전자 태블릿 PC 납품)

- 이집트 정부는 E-learning 정책에 따라 태블릿 PC를 공립 학교에 배정 결정
- 삼성 이집트 법인은 "20년 교육용 태블릿PC를 조립하여 이집트 정부에 납품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21~'26년 동안 총 420만 대의 태블릿PC를 순차적으로 공급 중
 - * '22년 9월부터 배포된 모든 태블릿PC는 이집트 공장에서 생산

3-6. 섬유·의류산업의 매력 투자처로 부상, 수출 기회도 상승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이집트 섬유·의류산업은 이집트 GDP의 3%를 차지하는 두 번째 규모의 산업
- ※ 섬유·의류산업의 수직적 생태계 구축, 섬유·의류산업 현대화 추진으로 사업 여건 개선 중
- ※ 낮은 인건비, 물류 이동에 편리한 입지, 관세 혜택 등 주력 시장 수출에 유리한 조건 보유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이집트의 섬유·의류산업은 고품질 면화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23년 기준 GDP의 3%를 차지하는 식품산업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산업
 - 이집트에는 섬유 봉제 기업 약 6,745개가 운영 중이며 대다수가 수출에 집중.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으로 의류 수출의 81% 차지
- '16년부터 '24년까지 노후화된 제조시설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면화 재배 확대 등으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 중
 - * 이집트는 최고급 면화 생산지로 섬유·의류 봉제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현지에서 대다수의 원부자재 공급 가능
- 최근 이집트는 베트남, 인니 등에 진출해 미국,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 중이며, 원인은 낮은 인건비, 무관세 수출, 안정적 물류임
 - 최근 베트남, 인니 등의 지속적 임금 인상으로 진출 기업들의 경영 이익 감소
 - * '24년 기준 베트남 최저 월급은 약 200달러 내외, 이집트는 약 123달러 내외
 - EU는 FTA로, 미국은 QIZ 협정을 활용하면 무관세 수출 가능하며, 미국의 섬유 봉제에 대한 높은 수입 관세는 무관세 수출 매력 상승 요인
 - * 현지 생산 비율 35% 충족하고 이 중 약 11%를 이스라엘산 원부자재 사용 필수
 - * 미국의 봉제 의류 분야 수입 관세는 16.5~27.7%로 높아, QIZ 활용도 높은 분야임
 - 이집트는 미국·EU 수출 시 운하를 통하지 않고 안정적 물류 이동이 가능, 특히 최대 수요처인 미국까지 운송 기간이 12일로 아시아(약 1개월) 대비 단축
 - * 최근 수에즈 운하는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물류비 상승, 운송 기간 장기화 등 애로 발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진출전략) 미국·유럽 수출 기업 대상 현지 파트너 발굴

- 對미국 및 EU 수출 기업들의 현지 생산을 통한 무관세 혜택 가능

-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Free Zone 입주를 통해 수출 효과 극대화 가능

*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퍼블릭 프리존 혹은 프라이빗 프리존 입주 필요하며 퍼블릭 프리존 입주 시 매출액의 2%는 수출세로 납부

- 섬유 봉제 산업 현대화, 면화 재배 현대화에 따라 수출시장도 접근 가능

• (유망품목) 방적기, 방직기, 염료 등

- 이집트 섬유 봉제 공장 현대화에 따라 방적기, 방직기에 대한 對이집트 수출 증가세이나 현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관세 적용. 최대 수입국은 중국

* 스위스의 Rieter Group은 이집트의 Cotton & Textiles Holding Company와 협력하여 현대적 방직 기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22년)

- 최근 환율 급등 후 수입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중고 기계 선호도가 높은 상황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염료 (HS 3204) 	선정 사유 • 섬유산업은 이집트의 저렴한 인건비, 지리적 요충지인 점과 EU·미국에 면세 수출이 가능하여 이집트의 외화 획득에 주요한 산업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산업임 •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기업들이 이집트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 시장을 겨냥한 기능성 스포츠 의류 등 고가의 섬유·의류 공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차별적 기술이 필요한 염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시장 동향 • 이집트에서 외화 부족 상황으로 송금 규제가 극심했던 '22~'23년에도 꾸준히 1억 달러 이상 수입해왔음
	경쟁 동향 • '23년 중국이 수입시장의 33% 차지하며 1위, 인도가 약 30%로 2위로 양국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수입액 1,100만 달러이며 점유율 10% 내외로 3위 기록
	진출 방안 • 현지 섬유 제조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야로, 경쟁력 있는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 이집트 및 중동 국가의 섬유 전시회 참여를 통한 에이전트 발굴 필요 • 전통산업인 만큼 디지털 방식의 홍보보다는 대면 홍보,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여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한 관계 구축 필요 • 최근 환경 문제가 국가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정부 규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기술 개발이 필요
품목명 2	
자동 전기 차단기 (HS 8536)	선정 사유 • 에너지 및 건설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와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전기세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확대 • 이집트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에는 고품질의 전기가 필요한 산업 분야 증가세
	시장 동향 • 주거단지, 상업, 산업 프로젝트가 활발하여 전력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동 전기 차단기에 대한 수요 증가 • 산업 분야에 전기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 전기 차단기 수요 증가
	경쟁 동향 • 이집트의 전력 자동 차단기 시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지멘스, ABB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가격 우위와 정부의 지원으로 현지 제조업체들도 성장세 • 이집트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 저렴한 제품은 현지 제조업체들이 유리하지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분야 등 품질이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브랜드가 우위 차지 • 외국 제조업체는 원격 모니터링 및 IoT 연결과 같은 스마트 기능을 갖춘 고급 차단기를 공급
진출 방안 • 이집트의 산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자동 회로 차단기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고려 •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맞춘 전력 차단기 공급 유망 • 건설회사, 산업 기업, 소매업체와 협력을 통한 유통 네트워크 강화 필요하며, 스마트 전기 차단기와 같은 첨단 기술 진출 시 기 진출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 필요	

품목명 3	
전기차(EVs) 및 충전 인프라 (HS 8504) * 전기차 충전소 	선정 사유 • 이집트 정부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친환경 교통과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관심이 높음 • 이집트 정부는 '25년까지 전국에 3,000개의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갖추겠다는 목표 수립
	시장 동향 • '23년 이집트 전역에 약 300~35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충전소는 레벨2 충전기로 구성, 고속 충전소는 교통량이 많은 일부 지역에 설치 • '24년 약 500~600개 충전소로 확대 예상, 주요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 관광지, 고속도로로 확장 기대
	경쟁 동향 • 이집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Infinity-E는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상업지역 소평물, 주거단지는 물론 전략적 고속도로에 집중 • ReVolt는 도시 거주자와 상업용 차량을 위한 충전소 공급 • Shell Egypt, Simens도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입에 관심 표명
	진출 방안 • 현지 시장에 맞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필수 • 배터리 기술 개발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도 고려
품목명 4	
조리기구용 코팅 재료 (HS 320990) * 조리 기구용 세라믹 및 화강암 코팅 재료 	선정 사유 • 납 등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APEO, GenX, PFBS, PFOS, PFOA와 같은 조리기구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 동향 • 이집트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로, 현지 생산 독려 • 현지 제조와 관련된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종종 수입 제한에서 제외
	경쟁 동향 • '23년 HS 코드 320990의 수입액 570만 달러 기록 • '23년 한국은 수입액 127만 달러로 2위 차지 • 매년 1위는 튀르키예 혹은 중국이 차지하며, 이들 상품 대비 한국산은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진출 방안 • 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전문 전시회 참여를 통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 가능 • 이집트 진출 시 품질은 물론 소비 가능한 가격 제시 필요
품목명 5	
자동차 부품 (HS 870880) * 자동차 부품, 쇼크 업소버, 서스펜션 부품 	선정 사유 • 최근의 환율 급등과 자동차 부품 부족으로 쇼크 업소버의 현지 제조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입상으로부터 합리적 가격의 제품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지 제조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 동향 • '23년 이집트의 자동차 및 부품, 예비 부품 수입액은 약 46.4억 달러 기록, '22년 51.5억 달러에 비해 8.7% 감소 * HS CODE 8708809000_87.02에서 87.05까지의 차량에 대한 서스펜션 시스템 및 부품(쇼크 업소버 포함)
	경쟁 동향 • '24년 한국은 수입국 순위 15위 기록 •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부품 가격이 급등하자 저렴한 대체품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나 쇼크 업소버의 수요는 여전히 선호
	진출 방안 • Auto Mechanika와 같은 전문 전시회 참여를 통한 현지 에이전트 발굴 • 서스펜션 부품, 브레이크 시스템, 전기 부품 등 이집트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공략

품목명 6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모듈 (터치감지화면통합여부) (HS 8524)	선정 사유 • 이집트 의회는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부품에 수입 제품 관세 개정 승인 • '23년 대통령령 제67호는 헤드폰, 배터리, 카메라 등 국내 휴대폰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5~30%에서 2%로 인하
	시장 동향 • '24년 터치 감지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듈 수입액 209억 달러 기록
	경쟁 동향 • '24년 수입국 순위는 중국이 1위로 약 1.6억 달러로 점유율 74.2% 차지, 한국은 2위로 수입액 2,700만 달러 및 점유율 13.0% 기록
	진출 전략 • 이집트의 휴대폰 조립 및 제조사와 협력하여 이집트 평면 패널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
품목명 7	
콘택트 렌즈 (HS 900130) 	선정 사유 • 젊은 층의 근시 환자 증가로 인해 시력 교정에 대한 수요 증가, 콘택트 렌즈 수요 증가 • 젊은 층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컬러 렌즈 수요 증가
	시장 동향 • 패션에 민감한 인구 증가, 렌즈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패션용품으로 자리매김 중 •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유통업체의 활약으로 수입시장에서 콘택트 렌즈의 다양성과 접근성 향상
	경쟁 동향 • '23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아일랜드가 20.5%로 1위, 미국이 20.5%로 2위 차지, 한국은 수입국 3위로 수입액 4.8억 달러이며, 수입시장 점유율 12.2% 기록 • 아일랜드산 Acuvue와 미국산 Freshlook, Boush&Lomb 등이 인기 브랜드이며, 한국 브랜드는 Clear vision, Bella, Celena가 있으며 고품질, 트렌디한 색상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진출 방안 • 이집트 의약품관리청(EDA)에 등록 절차를 수행할 에이전트 또는 유통업체 발굴 • 에이전트와 유통업체는 아이 케어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 유통 가능 • 수입시장에서 유명한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 트렌디한 색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품목명 8	
자외선 차단제 (HS 330499) 	선정 사유 • 이집트의 기후, 문화적 변화, 건강과 미용에 대한 인식 제고, 특히 여름의 강렬한 자외선으로 피부 손상 위험 증가 • 태양 노출 시 피부 노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 증가로 자외선 차단제 수요 촉진 • 소셜미디어의 자외선 차단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여
	시장 동향 • 건강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수입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제품과 다양한 제품 제공 목적 • '23년 HS Code 330499 수입액 5,776만 9천 달러 기록 • '23년 수입은 높은 수요로 인해 전년 대비 7.3% 증가
	경쟁 동향 • '23년 수입시장 점유율은 프랑스가 36%로 1위, 독일 14.4%로 2위, 미국 8.5%로 3위 차지 • 미국과 유럽 브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 반면 한류로 인해 한국 뷰티 및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
	진출 방안 • 이집트 의약품관리청(EDA)에 등록 절차를 수행할 에이전트 및 유통업체 발굴 • 선정된 에이전트와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을 통해 제품 유통 가능 • 수입시장에서 유명한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 트렌디한 색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필요

품목명 1	
인프라 건설 	선정 사유 •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개발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시장 동향 • 대중교통, 전력망, 상하수도 등 수처리, 병원, 주거시설, 쇼핑몰 등 도시 인프라 수요 증가 예상
	경쟁 동향 • 주요 프로젝트는 현지 국영기업이 대부분 수행 중 • 이집트 기업 이외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기업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해 있음
	진출 방안 • 국영기업 등 주요 발주처 Top Tier와의 JV 등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고려 • GPP, MDB 등 정부 주관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 행사 참가로 발주처 네트워킹 강화
품목명 2	
친환경 에너지 	선정 사유 • '22.11월 개도국 최초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후 그린, 재생에너지 산업 본격 추진 • 수에즈운하경제구역(SCZone) 인근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 등의 설비 구축 활발 • '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42%로 증대 목표
	시장 동향 • 이집트 일 평균 일조 시간은 9~11시간으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최적화된 조건 보유 • 나일강으로 인해 평균 풍속 8m/s 이상으로 풍력 발전에도 유리한 조건 보유 • '15년 발견된 30조㎥ 규모 조흐르(Zohr) 가스전 등 천연자원 풍부
	경쟁 동향 • 인도 Ocior Energy, 덴마크 Mearsk 등 글로벌 기업의 이집트 그린수소 분야 진출 가속화 • 사우디 최대 전력 기업 ACWA Power는 '26년까지 이집트 재생에너지 산업에 100억 달러 투자 검토 중
	진출 방안 • 신행정수도, 주요 제조업 단지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노력 중. GPP, MDB 등 국내 프로젝트 행사 참여로 현지 발주처와 네트워킹 강화 • 최근에는 주요 관광지 및 박물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시장도 진출 검토 가능
품목명 3	
폐기물 처리 	선정 사유 • '24년 기준 1억 780만 명 규모의 세계 13위 • 대국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우 많이 발생하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해 대부분을 사막에 버리거나 매립 •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
	시장 동향 • 이집트 환경부, 친환경 산업 육성 일환 폐기물 자원화(Waste to Energy) 정책 추진 박차 • 산업 초기 단계로 진출 시 시장 선점 효과 기대
	경쟁 동향 • 영국, 독일 등 유럽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타 프로젝트 시장 대비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재까지 대형 계약 사례는 많지 않음
	진출 방안 • 쓰레기 매립장뿐만 아니라 고정·이동식 정화조 설립 등 폐기물 처리 시설 분야 진출 검토 • 이집트 정부가 희망하는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 운송 차량, 유기성분을 재활용한 폐기물 처리 및 시스템 개발, 도시 고형 폐기물 재활용 등

□ (헬스케어) 2025 중동 바이오·의료 무역사절단

- 시기/장소 : 2025년 5~6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30개사 내외
- 참고사항 : UAE 등 인근국 공동 파견 예정

□ (제조업) 한-이집트 제조업 비즈니스 파트너십

- 시기/장소 : 2025년 6~7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가전, 소비재 등 이집트 제조업 진출 유망품목 세미나 및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10개사 내외 및 정부기관

□ (프로젝트) 2025 중동 기계 플랜트 무역사절단

- 시기/장소 : 2025년 9~10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인프라, 전력 등 주요 프로젝트 기자재 분야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30개사 내외

□ (GP) 2025 한-이집트 자동차 혁신 GP

- 시기/장소 : 2025년 4~5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자동차 제조 분야(Tier1/Tier2/애프터마켓) 세미나 및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GB Auto 및 계열사 5개사 내외

□ (원전) 2025 한-이집트 원전 시장개척단

- 시기/장소 : 2025년 10~11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원전 포함 전력기자재 분야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10개사 내외

□ (방산) 2025 EDEX 연계 방산 (온라인) 무역사절단

- 시기/장소 : 2025년 12월(잠정) / 카이로
- 주요 내용 : 전시 상담 연계 1:1 상담회
- 참가 규모 : (한국) 10개사 내외, (이집트) 30개사 내외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 국회의원 선거	2023년 12월	-
아프리카연합(AU) 제38차 정상회의 참석	2025년 2월	-
아랍연맹(AL) 제34차 정상회의 참석	2025년 중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25 회계연도 예산 책정	2025년 6월	-
IMF의 이집트 경제개혁 프로그램 5차 검토	2025년 3월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utoTech 2024 Egypt	2024.11.17~19	자동차
Egypt Energy Show 2025 (EGYPES)	2025.2.17~19	에너지
EGY Stitch & Tex Expo 2025	2025.2.20~23	섬유·의류
WATREX EXPO	2025.5.12~14	수자원
Egypt Beauty Africa 2025	2025.5.24~26	화장품
The Big 5 Egypt	2025.6.17~19	건설
Africa Health Excon 2025	2025.6.24~27	의료기기
SAHARA EXPO 2025	2025.9	농업
Egypt Defense Expo 2025 (EDEX)	2025.12.1~4	방산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문숙미	차장	카이로 무역관	+20-(0)-2754-5319	sm_moon@kotra.or.kr

2025 이집트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